

광 고

원양산업

제 1127 호

(2020년 1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오징어 채낚기 선사 - 대방사 업무협의회 개최 4 /
- 제42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거행 5 /
- 원양어선에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

■ 협회 10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7 /

■ 오징어 요리 만들기

(오징어전)

6

- WCPFC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보류 7
- IOTC 대표단, 황다랑어 문제 다룰 특별 회의에 동의 2
-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동북 연안 '모도리 가다랑어' 부 2
- 가다랑어 애매한 공급 상황, 시장 거래자들 혼란 82
- 중서부태평양 운반선 전채량 감소 9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9월 일일 어획량 최저 수준 92
- 호주 남방참다랑어 자국 판매 확대 추진 03
- 유럽 참치 생산자들, IOTC에서 공동 입장 개진 03
- 스리랑카 소매 체인점, 참치 품질 평가 앱 사용 13
- 에콰도르 Jadran社 선망선 신조 3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10월 보고 내용 17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태국과 멕시코, 미국으로 참치캔 수출 늘어 42/
- 3분기 방콕 가다랑어 하역량 낮은 수준 53/
- 바누아투, 나우루 강력한 방콕 참치 공급자로 부상62/

■ 오징어어업 동향

- 일본 신선 오징어 10개월만에 마이너스 23,
-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에서 오징어 조업 건조 23
- 일본 신선 살오징어 주요 항구 2.5배인 3,400톤 33/
- 살오징어 남획 상태 14
- 페루 올해 9월 어류 하역량 81% 증가 48
- 살오징어 "자원 회복 위해 대폭 생산 감소해야" 53
- 일본 10월 살오징어 동해 중앙부에서 분포 증가 53
-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약세 68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알래스카 명태 B 시즌 저조한 채로 마무리 되어가3/
- 미국 베링해 명태 B시즌 어획 부진 8/
- 러시아 2021년 명태 쿼터 0.1% 상승한 199만 6천톤9/
- Russian Fishery 올해 명태 생산량, 계획보다 앞서4/
- 일본, 명태와 임연수어 어획 증가 가능 발표 04/

■ 꽁치어업 동향

- 산리쿠 꽁치 어획량 증가 3,352톤 11/
- 일본 꽁치 AI 분석, 어장 86%가 예상과 일치 24/
- 일본 신선 꽁치 어획량 연일 1,300톤 이상 34/
- 꽁치 조업 드디어 활기 18/
- 꽁치 세계적으로 여름철 금어 필요 44/

■ 일본 수산 동향

- 日 주요 수산 식품 회사 모두 매출 감소, 수산 고전1/
- 홋카이도 어선 통계 2019년 2% 감소한 2만 3,686척4/
- 스시로 홀딩스 사명 변경 11/
- 마루하니 치로 알래스카 연어·송어 사업 철수 74/
- 日 불법 어획물 유통 방지 적정화 방안 승인 84/
- 이집트,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철폐 84/
- 일본 신선 고등어류 10월 조업 저조 전망 94/
- 日·英, EPA 합의... 수산물에 對 EU와 같은 내89/
- 일본, 문어 연말 위한 수량 확보 6/
- 냉동 새우 8월 수입 4% 감소한 1만 4천톤 6/
- 일본, 어획 증명 법제화 15/

■ 각국 수산 동향

- 북대서양 회유성 어종 TAC, ICES 조언에 따라 설23/
- 중국 원양 어선의 관리 체제 강화 35/
- 노르웨이, 러시아 대서양 대구 쿼터 증가 합의 35/
- 아르헨티나 깔깔새우 3개월 어기 종료 45/
- 노르웨이 양식 연어 2021년 최대 139만톤 예상45/
-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 법 국회 통과 55/
- 양식 새우 2018년 생산, 양식물이 전 세계 60% 600만톤5/
- 코로나19 재확산, 대서양 대구 시장에 그림자 드리65/
- 러시아 2020년 수산 생산 500만톤 전망 65/

■ 쉬어가는 난 (詩)

- 겨울바다 <황동규> 75/

■ 국내 수산 뉴스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곳, 총 148억원 투자 받는85/
- 해수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18/
-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 95/
- 해수부, '2020 K-SEAFOOD Global Weeks' 개최9/
- 한중어업협상 타결 10/
- 2020년 3분기까지 전 세계 해적사건 11% 증가 16/
- 해양수산부, '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 발간16/
- 명란은 무조건 냉장보관? 보관 쉬운 통조림 명란 나온26/
-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협의회 개26/
- 어선원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36/

오징어 채낚기 선사 - 대방사 업무협의회 개최

포클랜드 제도 '항만국 검색' 시행 대응 협의



우리 협회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코모도 호텔 오크도홀에서 포클랜드 현지 입어 대방사인 드라곤사와 내년 어기(2.1~5.31)부터 적용될 항만국 검색 조치 등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협의회를 실시했다.

드라곤사의 대표이사인 Ms. Carolyn Wendy Shebourn과 안전고관 Mr. Liam Shebourne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어기 입어 준비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선박 등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윤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14개사 임직원, 우리협회 포클랜드 주재원 및 해외협력 1부가 참석했다.

지난 5월 포클랜드 수산청은 현지 대방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만 등 외국 선주에게 항만국 검색(PSC)을 위한 포클랜드 관할 「외국어선 검사 매뉴얼」 개정 계획을 알려오며, 면제나 적용 유예 필요 조항의 검토를 요청해 왔다.

「외국어선 검사 매뉴얼」은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의 하위 규정인 행동강령 ‘어선 규정에 관한 행동강령 SI 2017/943’과 해상통보

‘MSN 1873(F)에 근거하고 있다. MSN 1873(F)은 2018년 11월 개정을 통해 어선 및 어선원 안전 개선 관련 사항을 기존 규정에 추가한 바 있으며 「외국어선 검사 매뉴얼」 개정 시 동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MSN 1873(F) 및 관련 규정은 토레몰리노스협약(어선 안전 관련 협정)을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 포클랜드 수역 출어 선사는 그간 업계 공무감독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를 걸쳐 도출한 검토 의견을 포클랜드 제도 입어 대방사를 통해 수산청에 전달했다. 우리 측 요청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는 현재 포클랜드 최종 의회(Ex-Co)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업무 협의회에서 드라곤 Carolyn Wendy 대표이사는 11월 말 경에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와 대만 선단의 요청 사항이 유사하고, 포클랜드 정부 일렉스(Ilex) 오징어 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최종의회(Ex-Co)도 면제 여부 결정에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업무 협의회에서는 △ 항만국 검색 진행 방법, △ 기존 수산청 입어 조건 검사(license briefing)와 별개로 항만청 소관의 항만국 검색 실시, △ 선박 안전관리 플랫폼 안전폴더(Safety Folder) 사용, △ 라이선스 할당 정책 변경사항, △ 대방사 안전관리자(독립 옵서버 승선), △ 구조보트 훈련 등 지속적인 선박 비상 훈련 등이 협의되었다.

제42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거행 금년 24위 추가, 총 9,252위 봉안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공원 입구 순직선원위령탑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위령제의 제주는 한국해운조합이 맡았으며, 위패 24위를 추가해 총 9,252위를 모시게 되었다.

42회를 맞은 올해 위령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유가족과 내빈은 초청하지 않고 선원 관련 8개 단체 임직원들만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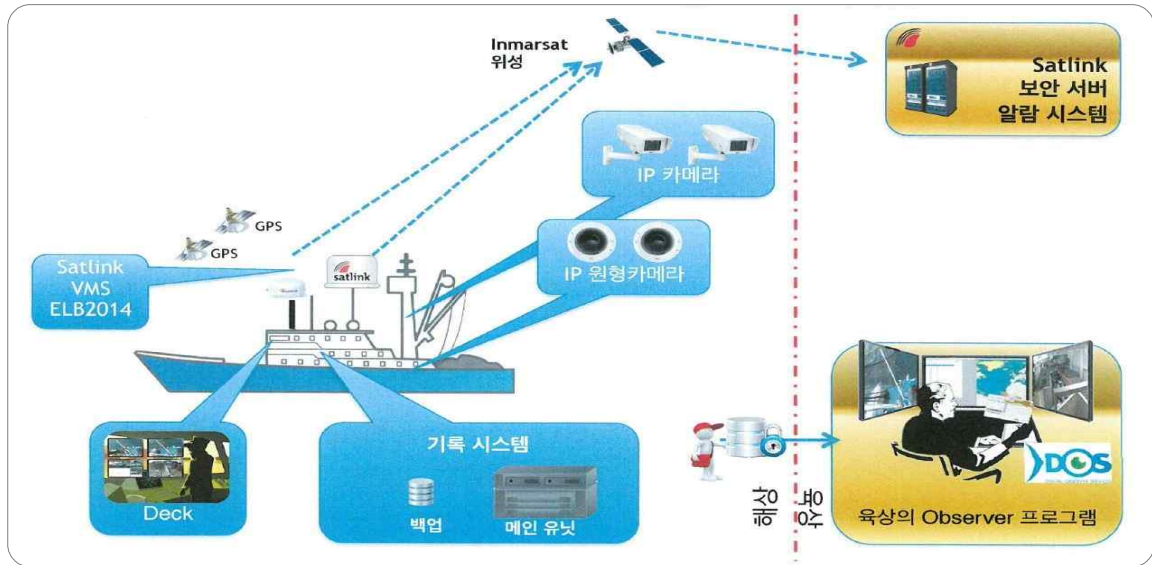
이날 오전 11시 정각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

박이 추모의 뜻으로 30초간 뱃고동 1회를 울려 시작을 알렸다. 이어 위패 봉안, 묵념,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매년 음력 9월 9일 중량절에 열리는 순직선원위령제는 우리 협회와 선원노련 등 8개 선원관련 단체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후원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 등은 순직 선원 위령탑 홈페이지(<http://smmt.or.kr>)에서 사이버 참배할 수 있다.

원양어선에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oring) 시스템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19일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WWF 한국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과 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 사조산업 이창주 대표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는 원양어선에 읍서버가 직접 승선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읍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읍서버가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1년('20.10.~'21.9.)이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체계도 구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조업감시센터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 분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조산업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선박(원양연승어선 1척)을 지원하고, 시스템 관리유지와 선원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 10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추진
 - 가. '20.10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10.16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6척 106.78억원 원안 의결
 - 나. 2020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미제출선사 자료 재요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산동 설계추진협의회 참석
 - 일자/장소 : '20.10.22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외협력본부장
 - 내용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등 설명 보고
- “역량증진을 위한 세미나” 참석
 - 일자/장소 : '20.10.21~22/ 상상캔버스(서울역)
 - 참석자 : 박덕배 前차관, 문해남 前실장, 협회 등 10명
 - 내용 : 동북아해양영토전, 보고서 작성법 설명 강의
 - * (개최) 해외수산협력센터
- 협회 운영 관련 업무추진
 - 가. '20.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초세무서)
 - 나. '20.10월분 일반회계 예산수지 결산 업무추진
 - 다. '20. 협회비 부과
 - 5차분 기본운영회비, 9월분 업종별 회비

○ '20년 9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26,858	83
- 참 치	212,253	75
· 횡감용	27,487	88
· 통조림용	184,766	73
- 명 태	17,963	110
- 오징어	33,374	228
- 꽁 치	1,492	33
- 기 타	61,777	81

회원지원부

- 노사 관련 업무추진
 - 가. 어로계약서 항목경비(입어료) 관련 노사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6, 14:00/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원양노조, 승진수산,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어로계약서 항목경비 중 “입어료”건 협의
 - 나. 오징어채낚기 추가합의서 체결알림 (해당사/10.28)
 - 어구비, 입어료 항목에 대해 원양노·사 합의 (10.19)
- 산학협약 관련 포항해양과학고 MOU 체결식
 - 일시/장소 : '20.10.7, 11:00/ 포항해양과학고
 - 참석자 : 노사위원장, 포항과학고 교장 외 / 협회장
 - 내용 : 우수 해양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

- 2020년 제3차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7, 10:30/ 전주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외, 선원노련 등 / 경영지원본부장 외 1인
 - 내용 :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해수부 직권(2021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1.5%))으로 결정

* 2,249,500원(전년 대비 33,540원 인상)

- 국회 참고인 출석
 - 일시/장소 : '20.10.8,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참석자 : 동원산업 및 사조산업 대표이사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원양어선 관리실태 조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4차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27, 11:00/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및 이사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장기 경영목표 (안) 심의

- 원양어선 안전 관련 업무추진
-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12, 14:00/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담당 사무관 외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안전관리지침 사항 협의

- 나. 제35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준비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12, 16:30/ 영상회의
 - 참석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8개 주관기관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세미나 준비경과 공유

- 다.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28, 13:00/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이성재 사무관 외, 연수원 교수/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안전관리지침 표준매뉴얼 마련 방안 등 협의

-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선원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2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5, 10: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원양업계, 노동조합/ 해외협력1부장 외 1인
 - 내용 : 원양선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 나. 부산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13, 14: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참석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강화방안 논의

- 다. 원양선원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3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16, 10:30/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외, 원양산업과, 원양업계, 노동조합/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부이사, 회원지원부장 외 1인
 - 내용 : 원양선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라.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노사정 협의회 (5차)

- 일시/장소 : '20.10.30, 10:30/ 협회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원양업계, 노동조합 등/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부 이사, 회원지원부 부장 등
- 내용 : 원양선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마. 2020년 하반기 외국인어선원 근로실태조사 계획알림(회원사/10.22)

- (연근해어선) '20.10.26~11.20
- (원양어선) 수시(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여 면담 등이 가능한 때)

바. 항만보안 강화조치 이행 협조 요청 (전화원사/10.19)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선박 경비 강화

○ 순직선원 위패봉안 합동위령제 참석

- 일시/장소 : '20.10.25, 11:00/ 태종대공원
- 참석자 : 해상노련 및 유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코로나19에 따라 유관단체 실무자만 참석하며 간소하게 진행

○ 2021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 관련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28, 15:00/ 기재부
- 참석자 : 기재부 및 해수부 담당 공무원 등 / 회원지원부장 외 1명, 해외협력2부장, 해외협력1부 차장

- 내용 : 조정관세 적용 필요성 등 협의

○ 2021년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 회신(한국해양수산연수원/10.13)

- 3개사 33명(항해 14명, 기관 19명)

○ 2020년도 원양어선원 해외묘지관리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요청(해당 한인회/10.23)

- 경비 사용내역 및 영수증, 보수 전후 사진 등

○ 20년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관련 11월 입항 계획 알림(부산청/10.29)

- 2개사 2척

* 12월 입항계획도 조사 중

○ 2021년 원양어선 국내항 입항 일정조사 (전화원사/10.28)

- 2021년도 해사안전 지도·감독계획 수립 자료 마련

○ 찾아가는 선사간담회 계획 알림(전화원사/10.28)

- 항만국 검색 및 해외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 신고 방법 안내

○ 케이프타운 협약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협조 요청(전화원사/10.29)

-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요청에 따라 현존선에 적용되는 항해설비 및 무선설비 관련 설문조사

○ 기상악화 대비 선박 안전 관리 등 철저요청 (전화원사/10.8)

- 부산항 항계 내 항만시설에 정박·계류한 선박 철저히 관리

○ 코로나 관련 회원사 안내 및 조사

가. 항만입국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사항 변경알림(10.14)

나. 미얀마 임시항공편 운항 알림(전화원사/10.16)

다. 항만 입항선원 검역강화 조치 시행알림 (전화원사/10.21)

라. 미얀마 임시항공편 운항 알림(전화원사/10.28)

마. 항만입국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사항 변경 알림(전화원사/10.28)

바. 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폐소자 환불 안내 (전화원사/10.28)

○ 해적관련 업무추진

가. 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21, 14:00/ 부산역 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안전과 과장 외, 원양산업과, 선원정책과,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상노련, 원양노조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관련 협의

나. 서아프리카 해적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29, 15:00/ 화상회의
- 참석자 : 외교부, 해수부, 동원산업, 동양수산, 신라교역/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기니만 해상안보 관련 의견 교환 등

다. 선사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해적피해예방 교육자료 배포(전회원사/10.5)

라. 말레이시아 영해내 무단투묘 주의 안내문 전파 등 협조요청(10.14)

마.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보고서 공유방법 변경알림(전회원사/10.19)

바. 2020년 11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및 연락처 변경 알림(전회원사/10.20)

사. 서아프리카해역 해적피해예방 지침서 배부(전회원사/10.30)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 (125개소 319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74호 10.8, 75호 10.14, 76호 10.21, 77호 10.28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74호 정보 12건(방콕 가다랑어 가격, 계속 하락/ 명태 가격 상승 예상/ 일본 신선 꽁치 7~9월 70% 감소한 1,200톤)

- 제75호 정보 12건(중서부태평양 선망선 8월 공해 어획량 하락/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약세/ 일본 미야기에서 올해 꽁치 첫 어획 등)

- 제76호 정보 12건(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하락/ 일본, 명태와 임연수어 어획 증가 가능 발표/ 노르웨이, 러시아 대구 쿼터 증가 합의 등)

- 제77호 정보 12건(알래스카 명태 B 시즌 저조/ 일본 신선 꽁치 어획량 연일 1,300톤 이상/ 코포나 대서양 대구 시장에 그림자 드리워 등)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가. 원협, 포항해양과학고와 기술인력 양성 MOU 체결(10.7, 부산 일간지,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업(10.12) 2면, 한국수산신문 4면, 어민신문 5면

나. '협회, 「2020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작성(10.13, 수산전문지)

- 수산신문(10.19) 4면, 어민신문 4면, 한국수산신문 4면, 수산인신문 6면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10월호(제1126호) 제작

- 협회소식 3건(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협정 최종 타결 등)
- 국내소식 5건, 해외수산정보 43건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2021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 개최
 - 기간/장소 : '20.10.6-7, 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솔로몬) 수산부 장관, 차관, 법무부 자문 등
(우리나라) 태평양 참치선망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2021어기 솔로몬 수역 입어조건, 선박 검사(VI) 절차 등 협의
- 2021어기 한-PNG 참치선망 입어협상 개최
 - 기간/장소 : '20.10.12-13, 10:00/ 화상회의
 - 참석자 : (PNG) 수산청장, 법률 자문 등
(우리나라) 태평양 참치선망출어사 / 협회 협력1부
 - 내용 : 2021어기 PNG 수역 입어조건, 선박 의무 검사, 조업선 간 해상 선원 전선 등 협의
-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27차 연례 회의 등 참석
 - 기간/장소 : '20.10.8-15, 14: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일본, 호주, 대만, 한국 등 CCSBT 회원국/ 협회 협력1부 차장 외 2명
 - 내용 : 2019년도 이행사항 점검, 2021년 국가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회의 장소 논의 등
- 제3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기간/장소 : '20.10.28, 14:00
/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 출어사, 선장협회 / 협회 협력1부 이사
- 내용 : 참치연승 선원 근무 시간에 관한 건 등 논의

-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지원사항
- 가.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추진 관련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20, 15:00/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세계로선박금융, 아그네스수산, 승진수산
/ 협회 해외협력1부 이사 외 1명
 - 내용 :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추진 경과 점검, 선박대여 및 펀드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논의 등

나. 2020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사업자 추가 수요 조사(10/28까지, 1척분)

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서류 제출(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페루 입항 시 VMS 의무 장착에 따른 건의를 위한 페루 입항 여부 조사
 - 국제수산기구 어획할당량 9월 기준 소진현황 보고(해수부)
 - '19/'20어기 조업일수 정산 및 '20/'21어기 키리바시 입어로 2차분 배정
 - ICCAT 참다랑어 쿼터 선사 내 쿼터 전배 요청 (해수부)
 - CCSBT 남방참다랑어 9월 어획실적 및 11월 양륙계획 조사
 - 참치연승 눈황다랑어 HGT 처리 어획물 어획 실적보고 임시 조치방법 안내

- 국제읍서버 분쟁조정 매뉴얼 업계 의견 전달 (수자원)
- '20/21어기 키리바시 입어로 2차분 송금
- 국제수산물 어획할당량 9월 기준 전배현황 보고(해수부)
- CCSBT 9월 어획실적 및 11월 양륙계획 제출 (해수부)

- 참치선망 조업일수 전배

○ 오징어어업 지원사항

가. 제11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16, 14:00
/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남서대서양 오징어어업 출어사
/ 협회 해외협력1부 차장
- 내용 : 어로계약 등 노사 간 현안사항, 대방사
방한 일정 협의

나. 원양 오징어채낚기선사-포클랜드 대방사 업무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29, 10:00
/ 부산 코모도호텔 회의실
- 참석자 : 포클랜드 대방사 관계자, 오징어채낚기
선사 / 협력1부
- 내용 : PSC 가이드라인 숙지, 안전폴더 사용,
선박 청결 프로그램 제작, Induction
교육 및 선원훈련 실시 강조 등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96오양호' 명태쿼터 반납에 따른 수요조사
(10.12/ 북양위원회)

- 명태쿼터 700톤 반납

- 러수역 조업선 통제 감독관 교체관련 내용
입수 및 알림(10.13, 10.14/ 해수부, 동북극
국경수비대, 남북수산, 사조대팀)

- 동북극 국경수비대 감독관 승선료 상환 조치
알림(10.14 / 사조오양)

- 러수역 조업선 감독관 승선 관련 추가 계약서
서명본 제출(10.15 / 동북극국경수비대)

- 러시아 EEZ 및 EEZ 인근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조건 준수 당부
(10.22 / 북양, 대구, 콩치 위원사)

나.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러수역 모니터링이용별첨계약서 서명본 제출
(10.15 / CFMC)

○ 2020년 북양합작명태 관세감면 추천반입량 알림(10.8 / 한러위원회)

- '20.9.30 기준 88,895.389톤

- * 전년대비 113.39%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지침 개정 의견 조사(10.7 / 콩치위원회)

- '21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조사

○ 제42차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연례위원회 업무추진

- 에스토니아 어업협회장 서한 접수
(10.6 / 에스토니아어업협회)

- '21년도 쿼터 전배 금액 협상 시작 희망

- * 에스토니아 제시금액 : USD22,500

- ** '19년도 쿼터 전배금액 : USD28,000

- 러시아 수산투자 투자 제안서 알림
(10.26 / 북양, 대구, 봉치, 한·러위원회)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투자 관련 KOMKON社
투자 제안서 알림
 - 투자장소 : 러 캅차카 라코바야만
 - 투자내용 : 냉장터미널, 조선소, 수산물 가공 공장
-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가. 20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2차 교부금 결정
및 통지(10.20 / e나라도움)
- 나.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업데이트
(10.26 / 해수부)
 - 20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 현황
자료 제출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02개사 709건('20.10.1~10.31)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10.8,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0.9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0.9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4개사 6척(참치선망 2, 참치연승 4)
 - 출항 : 6개사 11척(참치선망 2, 참치연승 9)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다자·양자회의 참석 및 후속 업무
- 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및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8-16/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김선경 전문관
 - 내용 : 회원국별 이행평가, 과학위 자원평가 보고,
21-23년 TAC 및 할당, 21-23년 예산,
바닷새 교육프로그램 등
- 나.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수석대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27, 08:00/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SPRFMO 사무국 등 회원국,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김지은 전문관
 - 내용 : 제9차 총회 일정 및 계획 논의 등
- 다.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북방
위원회(NC16) 참석
 - 일시/장소 : '20.10.7~8/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참다랑어 등 북방자원 관리 논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제도(CDS) 개발 논의 등

라. 제4차 WCFPC 전자감시작업반(ERandEMWG)

- 일시/장소 : '20.10.14/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WCFPC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등

마. 제39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0.26~30/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2019/20 어기 회원국 이행평가, 보존조치 (CM) 개정, MPA 지정 등

바.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제42차 연례회의 (9.21~25)후속업무

- 회의자료 · 회의록 검토, 참석 결과보고 작성 · (회의결과) 3M 대구 '21년 TAC 1500톤, 그 외 어종 기존 권고 유지, 사무국장 계약연장 등

○ 보존관리조치 번역(계속)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 일본 해양수산 동향 조사

가. KMI 동향 공유 회의(해양영토 관련 동향 모니터링) 참석

- 일시/장소 : '20.10.7. 10:30/ 해수부 해양영토과
- 참석자 : 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박영길 센터장, 해수부 해양영토과 김민성 과장 등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선경, 이지현 전문관

- 내용 : 해양관련 첨단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법 문제, 일본해/동해 표기 문제 관련 일본 동향 공유

나.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조사(해양환경정책과)

- 제7회 의견수렴회의 방청 후, 내용 정리(10.8)
- 주요언론/지역언론 방출 결정 관련 언론 동향 조사

다. 해양영토, IHO 발간 S-23 관련 동향 조사 (해양영토과)

- 독도 관련 일본의 새로운 조사 결과 내용 조사
- 아시아 슈퍼그리드 관련 일본 동향
- 일본 환경성 조어도 환경 조사 관련 동향
- 산케이 신문 “독도를 생각하다” 정기 기고 번역
- 일본국제문제연구소-시마네대학 미군 제4항공도 연구 상세 내용 번역/언론 동향 조사

라. 월간 일본 동향 작성

- 일본 수산청 최신 동향 및 수산업 동향(10월)
- CCSBT 총회 결과, IUU 우려가 강한 어종 어획 법제화 등

○ 중국 관련 요청 대응, 자료 조사

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 중국 해양정책 관련 자료 업데이트
- 농업농촌부 공개 불법조업 사례 조사
- 중국 어업감독정책 양검2020
- 수산업 현황 및 최근 이슈 업데이트
- 월간중국 수산업동향 10월호 게재
- 중국 오징어 원양업계 현황

○ 기타

- 국제수산물간동향 작성 및 OFIS 게재
- Economist 기사 요약 (국제협력총괄과 요청)
- (ICCAT) '21년 연장 조치 관련 회람문 검토, 의견 제출

- 3/4분기 국제협상전문가육성관리사업 실적보고
시행(10.8,국제협력총괄과)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가. OFIS 개선 필요자료(사전협의 신청서, 제안
요청서, 보안성 검토 요청서 등) 제출, 사전검토
요청(해수부 EA위탁운영팀에서 진행)
- (사전검토 결과)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사항 추가, 적정 사업기간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 추가

나. 원양산업뉴스 18건 업로드

다. 오만, 칠레 국가정보 업데이트(10.29)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에 등록(8건)

나.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23/ 토즈
- 참석자 :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센터 직원 9인
- 내용 : 가나 수산물 소개, 가나 현황, 가나 수산업
현황 등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20년 투발루 지원물품 구매용역 계약 체결(10.5)

- 지원물품(제빙기, 아이스박스 등 13품목, 224개
물품) 구매, 해상운송

나. '20년 투발루 사업 지원물품 해외조달물품 대상 사전 시제품 검수

- 일시/장소 : '20.10.19, 11:00
/ 경기도 광주 신안과학
- 참석자 : 느낌기획원 신재승 대표, 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해외 조달물품(아이스박스 2종(200L,
1000L))에 대한 사전 시제품 검수, 납품
계획 협의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

- 통계조사 단독기업체 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제출
(10.1, 통계청)

○ 해외수산물시설투자(용자) 관심업체(월드수산) 방문 설명 출장

- 일시/장소 : 10.15, 인천 강화도
- 출장자 : 이희진 팀장, 이재영 행정관
- 내용 : 사업현장 시찰, 센터 소개, 용자사업 절차
설명 등

○ 국제협상지원팀 인력충원(전문관1인) 채용

- 서류접수(9.21~10.3), 필기 및 면접(10.8)
- 최종합격자 공고(10.12, OFIS, 협회 홈페이지)
- 인사발령(10.19)

○ 센터 규정개정 보고(10.5, 국제협력총괄과)

- 센터 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규칙, 인사관리
규정, 위임전결 규정 개정





오징어전



❖ 재료

- 4인분/237Kcal
- 재료 : 오징어 2마리, 쇠고기 100g, 달걀 2개, 밀가루 3/4컵, 소금·식물성기름, 쇠고기 양념, 다진 파 2 작은술, 다진마늘 1/2 작은술, 간장 1작은술, 소금,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 조금씩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데치기 : 내장과 먹물주머니를 떼내고 껍질을 벗긴 뒤 안쪽에 칼집을 넣어 소금을 조금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 ② 오징어 썰어 밀가루 묻히기 : 데친 오징어는 10cm 길이에 0.7~0.8cm 두께로 썰어 밀가루를 묻혀 놓는다.

- ③ 쇠고기에 양념하기 : 쇠고기를 곱게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 뒤 조물조물 무친다.

- ④ 오징어에 쇠고기반죽 넣기 : 밀가루를 발라 둔 오징어를 둥글게 말고 그 안에 쇠고기 반죽을 넣어 아래위를 납작하게 누른다.

- ⑤ 프라이팬에 지지기 : 오징어말이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서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앞뒤로 지진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0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벨기에 세네갈 협력 논의

- 국립 통계 인구 통계청 (Ansd)의 게시판에 따르면 올해 5월 다카르 항구 활동이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선적량이 4.0% 감소하고 하역량이 12.5%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도 해당 기간에 비해 전체적인 항구 활동이 2.9% 감소, 선적량이 -10.7%, 하역량이 -0.6%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280	
	7.5~2 lbs	1,295	
	4~7.5 lbs	1,195	
눈다랑어	20 lbs 상	1,245	
	7.5~2 lbs	1,245	
	4~7.5 lbs	1,195	
가다랑어	7.5 lbs 상	1,245	
	4~7.5 lbs	1,195	
	3~4 lbs	1,045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46 유로 / MT	'20.10.28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물 하역 세금 철폐

- 피지에 입항하여 수산물(어류) 하역 시 피지 국세청에 톤당 \$430씩 지불하던 FISH LEVY가 현지 업체들의 수년간에 걸친 반발 및 노력으로 없어졌다.

나. 피지 입항 검역 현황

- 피지에 선박 입항 시 아픈 사람이 없고 수리 및 하역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상에서 아무 선박과도 조우하지 않고(운반선, 탱커선 포함) 28일 이상 있으면 정상적으로 입항 및 선원 상륙이 가능하다.
- 만일 입항 검역 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항해일수에 관계없이 입항 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14일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결과는 다음날 나옴)

다. 피지 3/4분기 경제동향

- 7.17 Khaiyum 경제부 장관은 2020-2021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서 발표, 세수 16억 7,360만 피지달러, 세출 36억 7,460만 피지달러로 20억 100만 피지달러(GDP의 20.2%)의 적자 예산이 편성됨.
- Khaiyum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피지 경제 규모가 21.7% 감소, 노동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1



만 5,000명이 노동시간 단축 또는 해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복구, △해고되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민간 투자소비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2020-2021년 예산안 및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피지달러)

구 분	'19/'20 예산안	'20/'21 예산안	21/22 목표
세수	3,491.7	1,673.6	1,805.7
세출	3,840.9	3,674.6	2,357.1
재정적자	(349.2)	(2,001)	(551.4)
시장가격	12,703.8	9,905.3	11,027.5

구 분	'19/'20 예산안	'20/'21 예산안	21/22 목표
GDP 고정 가격	11,282.7	8,293.7	9,463.6
경제성장률(%)	2.9%	(21.7%)	14.1%
부채	5,978.6	8,256.4	8,807.8
GDP 대비 부채	47.1%	83.4	79.9%

구 분	'19 잠정치	'20 예측치	'21 목표치
관광객	894,389	223,597	447,195
인플레이	(0.9%)	(3.5%) (6월)	1.4%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 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5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72/ kl	'20.11.1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뉴질랜드 대표 수산회사 순익 감소

- 뉴질랜드 수산회사 샌포드의 '19/'20 순익이 \$22,400,000로 예상된다. '18/'19보다 46% 감소한 것이다.

나. 외국인 선원에 의한 지역 감염

-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이 이루어져서 조업을 중단했던 뉴질랜드 수산회사들이 다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 400명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선원들이 2주 간의 격리를 마치고 11월7일에 조업을 위해 각자의 선사로 합류했다.
- 하지만, 외국인 선원에 의해 코로나 지역 감염이 발생하여(간호사 2명) 추가 외국인 선원의 입국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250	Sea Jho Co.Ltd
	L	2,250	
	M	2,050	
	S	1,80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BARRA COUTA	2L	1,800	Sea Jho Co.Ltd
	L	1,800	
	M	1,700	
	S	1,60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300	Sea Jho Co.Ltd
	2L	3,300	
	L	2,800	
	M	2,30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531/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11.3
	LMFO \$501/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 선적 AP 703호 한국인 피랍간부 선원 2명 석방

- 지난 8월 28일 서부아프리카
기니만 토고와 가나의 경계선
부근 연안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 정체불명의 해적에 피랍된 바 있는 한국인
간부 선원 2명이 피랍 50일 만인 10월 16일 오전
8시30분경 석방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 무사히
인계되었다.

- 지난 6월24일 파노피 프론티어호에 승선한 한국인
간부 선원 5명이 같은 해역에서 해적에 의해 나이
지리아 모처로 피랍되어 32일 만에 풀려 난지 두
달 만에 다시 Ap 703호가 해적의 공격을 당하여

서아프리카의 기니만 해역은 몸값을 노린 해적
들이 어선들을 선별 공격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
주어 기니만 연안에서 조업중인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과 한국인 선주들의 사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 외교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 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업계가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며 "추가 피
랍 방지를 위해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50여년 동안 재가나 한국인들의 피땀으
로 일구어 온 원양어업을 해적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위험지역
에서의 조업제한 등의 조치에 앞서 현지 공관들
은 연안국들이 가진 해적 퇴치 프로그램을 우리
원양어선 보호에 맞게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필요 시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도 지원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
고 있다.
- 50여명 가까이 승선하는 원양어선에서 아프리카
현지 선원은 제외하고 유독 한국선원들만 골라
납치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어느 때보다 한국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사후 약방문
보다 사전에 연안국들의 해적 퇴치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근본적으로 해적 공격으로
부터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과 원양선사를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가나 원양어업은 ICCAT, EU등의 강력한 규제와 펜데믹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묶여 있는데다, 해적들로 인해 사업의 채산성이 급속도로 떨어져 자칫 가나 원양어업이 붕괴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는 가나 한인들이 피팜으로 일구어 온 귀중한 해외 수산식량안보 주요 기지인 가나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와 같은 길을 밟지 않게 현명한 대처를 해 주길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다.

나. GMA 가나 수역의 불안정을 해결하다.

- Ghana Maritime Authority(GMA)의 기술 책임자 Capt.Inusah Abdul Nasir에 따르면 해상에서 해적 행위와 납치 사건을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선박 감시 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 기니만의 보안 위협에 대한 가나의 대응은 ECOWAS 해양 보안 시스템의 일부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통합된 VTMISS를 개발했다.
- 가나 수역 내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및 모니터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가나 항만 운용 계획과 전반적인 감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였다.
-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수준 향상을 위한 재검을 받고 있다.
- 레이더, 자동식별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VHF와 같은 전자 감시 장비와 날씨 및 온도 감지 장비로 구성된 원격 센서 사이트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 업그레이드로 국가 및 지역통제 센터가 전체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쉽게 소통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 나이지리아 NISS(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NISS, National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NISS, Captainer)의 경영자 과정 참가자들의 GMA 방문 중 Capt. Nasir는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영해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박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보안과 전략적 문제에 대해 브리핑한 Capt. Nashir는 기니만의 관련 해양 영역 전반에서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지속으로 관련국들은 협력하고 향상된 기술의 사용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참석자들에게 “소형 목선과 기름 유출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미지 획득을 위해 저궤도 극지 궤도 위성을 사용하여 레이더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기니만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 Mr Thomas Kofi Alonsi GMA 사무총장은 고용 수단을 창출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 해양 분야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발전이 있어야 할 해양 환경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 Mr Thomas Kofi Alonsi GMA 사무총장은 해적 행위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공동 접근이 필요한 초국가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 이번 방문을 기니만의 해적 행위문제와 국제 무역 및 개발에 대한 도전을 공동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지역 협력 노력의 신호로 설명하면서, 공유된 경험이 기니만 해역 국가들 간의 프로세스 조화를 강화하여 해양 영역의 보안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50	
	10kg 하	1,05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8kg 하	1,300	
	1.5kg 하	1,05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45/kl MGO	'20.9.30	육상급유
SK B&T	\$415/kl MGO	'20.9.30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증가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 수산물 수출량 및 금액은 596,4170톤, 24억 1,000만 달러이다.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전년대비 6.9%늘어났다.

나. 인도네시아 해양양식 잠재력은 크나, 개발은 미미한 수준

- 인도네시아 해양양식 잠재력은 2,400만 헥타르에 달하나, 2018년 기준 1.23%만이 이용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8월 26일 Webinar Maritime International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자문관 Rokhmin Dahuri씨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2020~2024년 기간동안 백돔, 해초류, 능성어, 백병어, Lobster 등의 양식을 육성할 계획
- 해양양식은 단백질 공급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장식품, 종이, 바이오에너지, 기타 식품산업의 원료 공급원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 현재까지 해양 양식의 주류는 해초류이나 다른 종류도 잠재력이 무한하며 Lobster의 경우, 수출시장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유럽 연합, 중동 국가 등으로 활짝 열려있다.
- Lobster 양식 잠재력은 1,230만 헥타르이며, 2019년 기준 2.25% 만이 이용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Lobster 치어 연간 최대 지속 어획량(MSY)이 125억 마리이며, 이중 50%만 어획하여 양식을 하면, 연간 3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920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한다.
- 다음은 해양수산부 수산 인력 개발 및 수산과학 연구 원장 Sjarief Widjaja씨의 발표 내용이다.
- 해양양식 개발을 가로막는 인도네시아 문제점은 사료, 질병관리, 생산기술, 기업경영, 기반시설(전기, 적절한 물 공급)등이며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송문제이다.

다. 코로나 동향

- 누적 확진자 수는 333,449명, 사망자 11,844명, 회복환자 255,027명이며 최근 1주일 간 1일 평균 확진자 증가는 약 4,000명이다.
-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확진자 약 336,000명)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으며, 조만간 필리핀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1일 현재 인도네시아 내 한인 Covid-19 누계 확진자는 26명(격리해제 19명, 자가격리 6명, 입원치료 1명)이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페루 생산부의 위성기기 의무 장착 법령 공고이후 현재 까지의 진행 상황

- 스페인 연승선들과 일본 참치선들은 자신들이 어획하는 새치류(상업명 :메까)와 참치류가 페루 생산부에서 주장하는 고 이동, 초 지역, 그리고 초 국경 어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 장착을 거부, 양국 선박 중 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없다.
- 페루 생산부에서도 고 이동, 초 지역, 초 국경 어종을 전갱이, 고등어 그리고 대왕 오징어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페루 공해상에 조업 중인 중국 채낚기 어선 350여척 중에서 지금까지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자의로 입항한 선박은 없다.
- 단, 환자 이송이나 기타 목적으로 입항했던 중국 채낚기 선박 3척은 해당 위성장비를 구매/설치하고 출항했다.
- 수리차 현재 입항/체항 중인 1척은 장비 구매 중이라고 한다. 본 선박까지 총 4척이다. 중국선박 대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치적인 경로를 통하여 본 법령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나. 2020년 9월 페루 수산물 양륙량 증가

- 총 156,400톤이 양륙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81.4% 증가했다.
- 양륙량 증가한 어종 : 멸치(71.3%), 대왕오징어(136.3%), 전갱이(335%), 가다랑어(301.3%), 고등어(1,247.3%)
- 양륙량 매출액 : 1억 8천만 Soles(5천3백만 달러)

다. 코로나 동향

- 10.27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비상사태가 11.31까지 연장되었다.
- 11.7 기준 페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920,010명, 사망 33,840명, 완치 843,600명이다.
- 11월 부터 코로나 감염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폐쇄되었던 세계적 유적지 마추피추도 11월 2일부터 재개장, 일반 관광객들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확대되어 10월 5일 부터 중남미 7개국 11개 도시에 대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
- 한국-페루 사증면제협정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페루 거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페루 비자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23 / 갤런 MDO	'20.11.7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물



정연국
명예해양수산물

가. 남아공 동향

-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대구 낚시 회사 중 두 곳인 I&J와 Sea Harvest는 6월 말까지 대조적인 성과를 보였다.
- 12개월 보고 기간 동안 I&J는 매출이 7% 감소한 23억 3,000만 Rand를 기록했으며 영업 이익은 40% 이상 감소한 2억 3,800만 Rand 기록했습니다.
- I&J는 COVID-19 대유행의 격리 및 격리 프로토콜을 완전히 준수함으로써 근무 직원의 수를 줄인 것이 하반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케이프타운 항구의 정체로 인해 수출 출하가 지연되어 분기 마진을 저해했다.
- Sea Harvest는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매출이 7% 증가한 12억 9천만 루피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환율 하락과 국내 및 국제 소매 시장 모두에서 '가정 소비'의 증가 영향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ea Harvest는 엄격히 비용 억제를 관리하고 낮은 연료 가격에서 이익을 얻었다.
- 남아공의 West Coast에서는 Rock Lobster 고갈로 인해 2021년 락 랍스터의 어획량을 22.8% 감소시키기로 했다. 2020/21년의 가능 어획량은 총 837톤으로 결정되었다.(2019/20년 1,084톤)

- Covid-19 대유행으로 West Coast Rock Lobster Association은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올해 2억 5,600만 Rand의 손실을 예상했다.
- 2020/21년 해상 상업용 어업 부문은 435.88톤이 할당되었다. 근해 상업 어업 131.03톤; 레크리에이션 낚시 30.08톤; 생계(임시 구호 조치) 어업 및 근해 소규모 어업 131.03톤; 근해 소규모 어업 108.97t이다.

나. 모잠비크 동향

- 모잠비크는 북부에서 IS 반군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 북부 해안을 따라 많은 관광 및 어업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
- 8월 18일부로 모잠비크는 비상 상태를 종료하고 재난 상태로 전환했으며 정부는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개괄했다.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IFO 380 \$287 / MT MGO \$448 / MT VLSFO 0.5% \$367 / MT	'20.10.30
Beira	MGO \$448 / MT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태국과 멕시코, 미국으로 참치캔 수출 늘려

올해 수출 태국 36%, 멕시코 61.5% 증가

올해 미국 참치 캔 섭취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초 미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조치로 인해 주요 식품을 사재기해 저장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구매자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멕시코와 태국의 캔 가공업자들은 미국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9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참치 캔은 12만 6,210톤으로 전년 대비 36%, 3만 3,419톤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FOB 기준 총수입액은 4% 소폭 하락했다. 이는 태국과 멕시코 같은 주요 공급 국가가 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국가들도 있었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이 전체 참치 통조림 수입에서

61.5%를 차지하며 미국 참치 통조림 수입 시장을 지배했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피트 컨테이너 1,320대분을 더 많이 수출했다.

멕시코 캔 가공업자들의 공급량도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3배이다. FOB 가격은 톤당 3,250 달러로 모든 공급 국가들 중 가장 저렴했으며 2019년 평균 가격보다 488 달러 낮았다.

필리핀 캔 가공업자들의 수출 물량은 식당 공급 등 식품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안정적이었고 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Mexican Deliveries Surging

US: Import Of Canned Tuna In M/T

Top 10 Origins (3Q)

	2018		2019		2020		Change %	
	M/T	FOB	M/T	FOB	M/T	FOB	M/T	FOB
Thailand	59,223	\$4,518	55,797	\$4,441	77,676	\$4,218	39%	-5%
Mexico	5,321	\$3,788	5,066	\$3,738	14,430	\$3,250	185%	-13%
Vietnam	11,189	\$5,090	11,017	\$5,545	12,100	\$6,166	10%	11%
Indonesia	9,263	\$4,076	10,065	\$3,961	10,330	\$3,788	3%	-4%
Ecuador	1,973	\$4,883	1,404	\$4,771	2,686	\$4,243	91%	-11%
Philippines	3,450	\$4,597	4,490	\$4,391	2,652	\$4,325	-41%	-2%
Costa Rica	2,245	\$2,939	1,403	\$3,863	2,216	\$4,883	58%	26%
Maldives	0	\$0	711	\$5,942	708	\$5,978	0%	1%
Spain	417	\$4,872	655	\$4,110	628	\$5,211	-4%	27%
China	3,545	\$3,958	724	\$4,553	453	\$4,445	-37%	-2%
Others	1,617	\$5,359	1,459	\$5,267	2,329	\$4,737	60%	-10%
Grand Total	98,244	\$4,471	92,791	\$4,499	126,210	\$4,298	36%	-4%

Value Per 1 M/T (USD)

Source: Atuna Analysis | NOAA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6일자



3분기 방콕 가다랑어 하역량 낮은 수준

2019년 수준, 한국 공급량 37% 하락

올해 3분기까지 태국 항구에 공급된 참치 원물 공급은 2019년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 가다랑어 공급 국가는 어획량 부족, 수요 감소 또는 타 국가로 공급지를 선택해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훨씬 낮았다.

올해 3분기까지 태국 항구에 하역된 냉동 참치는 총 46만 9,708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3분기 수입량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고 현재 가장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다. 올해 3분기까지 방콕으로 운송된 가다랑어 양은 전년 동기 대비 6%, 2만 2,054톤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2019년 3분기에는 2018년 3분기 대비 9%, 3만 4,285톤 감소했다. 가다랑어 톤당 CFR 가격은 1,280 달러로 2년 전과 비교에 400 달러 감소했다.

반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공급량은 각각 17%, 26%, 38% 증가해 가다랑어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중서부태평양에서 많이 어획되는 날개

다랑어는 몇 년 동안 방콕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어종 중 하나였다. 톤당 CFR 가격은 세 어종 모두 하락했다. 방콕으로 가다랑어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올해 3분기까지 방콕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대만 선주들이 공급한 냉동 참치 가격은 1,695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주요 공급자들 중 3번째로 높다. 이는 대만 선주들의 어획량 중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마이크로네시아의 공급량은 각각 2만 4,609톤, 1만 8,106톤 감소했다.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본과 중국 선주들은 날개다랑어 덕분에 사업을 확장했다. 일본은 3분기까지 태국 날개다랑어 운송량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어획이 좋았다. 중국 선박은 2019년 감소분을 모두 회복하고 2018년을 넘어선 3만톤을 운송했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18% 하락했다.

Bangkok's China's Import Strongly Recovering

Thailand: Import Of Frozen Tuna In M/T

Divided Into Major Orgins, CFR USD Per 1 M/T 3Q

	2018		2019		2020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Taiwan	75,359	\$1,823	92,905	\$1,770	83,924	\$1,695	-10%	-4%
Korea	67,138	\$1,697	67,106	\$1,421	42,497	\$1,187	-37%	-16%
Micronesia	35,195	\$1,643	56,256	\$1,485	38,150	\$1,427	-32%	-4%
Japan	34,381	\$2,064	22,608	\$1,798	32,632	\$2,295	44%	28%
Maldives	24,164	\$1,882	32,885	\$1,657	30,739	\$1,426	-7%	-14%
China	21,509	\$2,220	17,885	\$2,665	30,615	\$2,199	71%	-18%
Kiribati	44,433	\$1,682	27,897	\$1,395	30,292	\$1,282	9%	-8%
USA	30,319	\$1,688	30,455	\$1,539	21,680	\$1,336	-29%	-13%
PNG	61,735	\$1,716	24,787	\$1,403	7,166	\$1,250	-71%	-11%
Others	112,444	\$1,665	92,150	\$1,683	152,013	\$1,413	65%	-16%
Grand Total	506,678	\$1,720	464,933	\$1,600	469,708	\$1,511	1%	-6%

Currency used 1 USD = 32.29 BAHT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7일자



바누아투, 나우루 강력한 방콕 참치 공급자로 부상

바누아투 636%, 나우루 507% 증가

바누아투와 나우루는 현재 많은 선망선을 운영하며 방콕에서 강력한 참치 원물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

Atuna 10월 27일 기사에서 주요 공급 국가인 대만,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일본 등 9개국을 제외하고 기타로 분류된 국가들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지난해에 비해 65% 상승했다.

바누아투와 나우루는 2년 전만 해도 방콕 참치 원물 운송 물량이 없었다. Atuna는 이전 기사에서 바누아투 참치 선망선이 2018년 2척에서 2019년에 6척으로 증가했으며 나우루는 2척에서 9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나우루 국적 선망선은 14척이다.

Vanuatu & Nauru Strengthening Position At Bangkok Port

Thailand: Import Of Frozen Tuna In M/T

Divided Into Others, CFR USD Per 1 M/T 3Q Year

	2018		2019		2020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Vanuatu	0	\$0	3,908	\$1,350	28,762	\$1,329	636%	-2%
Nauru	0	\$0	4,113	\$1,398	24,961	\$1,297	507%	-7%
Indonesia	18,427	\$1,860	9,745	\$1,885	23,016	\$1,632	136%	-13%
Marshall Is.	17,056	\$1,598	17,444	\$1,457	17,841	\$1,359	2%	-7%
Seychelles	20,788	\$1,472	2,718	\$1,915	11,465	\$1,531	322%	-20%
Solomon Is.	13,209	\$1,631	14,294	\$1,401	9,007	\$1,212	-37%	-13%
India	8,585	\$1,633	7,238	\$1,431	6,130	\$1,249	-15%	-13%
France	6,096	\$1,544	4,656	\$1,637	5,984	\$1,160	29%	-29%
Spain	4,695	\$1,525	3,875	\$1,942	4,392	\$1,452	13%	-25%
Tuvalu	7,549	\$1,651	5,270	\$1,475	3,204	\$1,346	-39%	-9%
Others	16,038	\$2,195	18,888	\$2,388	17,251	\$1,982	-9%	-17%
Grand Total	112,444	\$1,665	92,150	\$1,683	152,013	\$1,413	65%	-16%

Currency used 1 USD = 32.29 BAHT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8일자



WCPFC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보류

WCPFC 소위 대만, 對日 쿼터 이양 거부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 제16회 북소 위원회가 10월 8일 웹 회의로 열려 일본이 요구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20% 확대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해 금년 관리 조치가 1년 연장되게 되었다. 대만에 의뢰했던 일본에 대한 어획 쿼터의 양도는 대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쿼터 증량 안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자원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점 등으로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관리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대만에서 대형어(1마리 30kg 이상) 어획 쿼터 300톤의 양도를 받았었지만 내년 분의 양도는 대만이 거절했다. 대만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국이 어획하고 남긴 잔여 쿼터의 이월 비율을 기존 5%에서 17%로 증가하고, 소형어(30kg 미만) 어획 쿼터를 대형

어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다. 자원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 관리 조치의 변경은 없었다. 내년 북소위원회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太田愼吾 심의관은 『올해야말로 처리(쿼터 증량을 결정)하고 싶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월률을 17%로 증가시키는 조치가 유지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었다』고 한 뒤 『내년에는 금년의 자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것부터 미국의 코멘트를 근거로 관계자와 상담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쿼터 증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CPFC 연례 회의는 12월 상순에 웹 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2일자

IOTC 대표단, 황다랑어 문제 다룰 특별 회의에 동의

IOTC 제24차 연례회의 11월 6일에 종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4차 연례회가 11월 6일에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 IOTC는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과 관련한 긴급 문제에 대해 협의할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다랑어 어획 통제 규칙(HCR)을 넘어서 어획에 대해서는 어선들이 제한을 넘어 어획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

는 수준의 간략한 논의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해상 전제 및 옵서버 커버리지 규정 개정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스페인 어선의 2018년 어획 추정량 불일치 관련 건은 해명 부족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있다. EU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6일자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동북 연안 ‘모도리 가다랑어’ 부진 이례적 상태 지속, 소형, 대형 중심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일본 동북 연안을 주 어장으로 하는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조업은 1마리 1.5~2kg의 작은 사이즈와 6kg 이상의 특대 사이즈를 중심으로 어획이 진행되고 있다.

예년 같은 시기의 주가 되는 3kg 사이즈의 「모도리(돌아가는) 가다랑어」가 어획되지 않고 이례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 센터는 밝혔다.

소형 및 특대형 사이즈는 취급 업체로부터 문의가 적고, 10월 1~30일 전국 주요 항구의 평균 위판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kg 281 엔이었다.

10월 1~30일 전국 주요 항구의 어획량은 2,562톤으로 전년 10월의 총 어획량 1,958톤을 상회했다.

주요 어획 항구인 미야기현 게센누마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860.1톤이었다.

동북 연안에서 출어 일수 및 조업 척수가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 센터는 설명했다.

동북 연안의 향후 조업 상황에 대해 『어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조업도 계속 될 것』이라고 이 센터는 밝혔다. 10월 중순부터는 『지방질이 좋은 작은 사이즈의 유통도 시작, 11월 중순까지 조업이 계속 될 것』이라고 이 센터는 말했다.

이밖의 주요 항구로는 가고시마로 10월 1~30일 전년 동기의 2.5배인 479.5톤을 기록했고, 치바현 보슈가쓰우라도 전년 동기 대비 11배인 180톤을 어획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일자

가다랑어 애매한 공급 상황, 시장 거래자들 혼란 1,300 달러 수준에서 거래, 가공업자들은 1,200 달러 수준 원해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 구매자들이 예상했던 약세 추세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소식통은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물(1.8kg 이상) 시세가 2주 전과 동일한 톤당 1,300 달러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방콕 가공업자는 톤당 1,300 달러 밑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캔 가공업자들이 톤당 1,200 달러에 입찰하고 있지만 선주 및 중계업자들은 톤당 1,300 달러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가다랑어 가격은 이 기간 동안의 역사적 가격 추세로 보면 매우 드문 모습을 보인다. 9월부터 10월말까지 가격은 2017년을 제외하고 보통 톤당

100 달러에서 250 달러까지 하락했다. 2019년에는 9월에 톤당 1,200 달러에서 10월에 1,000달러로 급락했다. 과거 몇 년간 이어져온 9~10월 가격 하락은 9월에 FAD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방콕의 참치 공급망에 과잉 공급이 예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망선은 현재 FAD로 어획한 후 전채를 위해 항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9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보다 25% 정도 감소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낮은 어획량은 지난해에 운반선들이 방콕 항구에서 대기했었던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10월 참치 하역량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참치 공급 라인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해져 중계업자들의 확고한 1,300 달러 수준 유지 주장이 지지받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1일자



중서부태평양 운반선 전재량 감소

9월 PNA 지역 전재 물량 3만톤 정도

9월에 서부태평양의 주요 항구에서 운반선에 전재된 참치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급격한 감소는 6월에 2년 간 최고 물량을 기록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주요 공급지역에서 선적된 물량은 곧 방콕에 도착할 예정이다.

PNA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전재된 참치 물량은 3만톤을 약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6월 6만 5,000톤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9월 전재 물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동안 운반선이 전재를 할 수 없어 바닥을 쳤던 때와 비슷하다. 운반선에 전재된 물량이 적다는 것은 향후 방콕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운반선이 태국에 도

착하는데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걸린다.

9월 선망선 어획물 전재량은 파푸아뉴기니와 키리바시가 가장 많았다. 서부 수역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부 수역은 조금 회복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 9월 참치 물동량은 6월 3만 5천톤에 비해 2.5배 감소해 이러한 경향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투발루에서 냉동 운반선 전재량은 3월 이후 증가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5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살 군도의 마주로 항구는 하락 추세에서 9월이 8월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5~6월 동안 보다는 하락폭이 여전히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6일자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9월 일일 어획량 최저 수준

일일 어획량 23.4톤

PNA EEZ와 공해에서의 9월 참치 어획량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도 9월 일일 어획량이 최저 수준이었다.

PNA 잠정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어선의 9월 PNA 수역 및 공해 총 어획량은 10만톤 조금 못 미쳐 작년 동기 대비 4만톤 감소했다.

올해 9월 PNA 수역 및 공해에서의 선망선 일일 어획량은 23.4톤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약간 조정될 수 있다. 올해 가장 어획이 좋았던 5월 50톤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다.

9월에 어선들은 대부분 나우루, 솔로몬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등 동부 수역에서 조업했다. 몇 개월 전에는 서부 수역에서 어획 노력을 집중했었다. 선망선 일일 하역량은 2019년 동기 대비 12톤 가까이 감소한 약 20톤을 기록했다.

선망선 스쿨 조업 대형 황다랑어(9kg 이상) 어획량은 하루 약 1.5톤으로 급락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4~5월 FAD를 이용했을 때 하루 5.1톤을 잡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FAD 금지 기간 동안 9kg 이하 소형 황다랑어 부수 어획은 거의 없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2일자



호주 남방참다랑어 자국 판매 확대 추진

양식 3사가 가공 개발, 코로나 감염병으로 대일 수출 의존 탈피

호주 남방참다랑어 관련 기업 3개사는 최근 남방 참다랑어 가공품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 기업인 '킹 프리미엄 호주 해산물'을 설립했다.

호주가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는 대부분이 남부 호주 포트 링컨에서 양식되어 일본에 냉동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대일 수출액이 20% 감소했다. 향후 대일 수출을 축소하고 호주 내에서 소비를 촉진 하자는 것이다.

벤처 설립에 참여한 것은 포트 링컨에 사업소를 둔 브라슬로프 피싱 컴퍼니, 슈티아 그룹, 덩코참치 파머스 등 3개 회사다. 각 사는 참다랑어 어획과 양식, 판매를 담당, 마이너스 90도의 초저온 냉장고도 갖고 있다. 새 회사는 남방 참다랑어를 약 20 종류의 토막으로 잘게 나뉘 국내 소매점 등에서 판매

할 계획이다.

또한 포트 링컨에 본부를 둔 남방 참다랑어산업협회의 최고 경영자(CEO) 브라이언 제프리 씨는 『국내에서 남방 참다랑어 소비량은 연간 약 250톤. 향후 1,000톤 소비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남방 참다랑어 어획 쿼터는 2019, 2020년 6,165톤이다.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호주로부터 남방 참다랑어를 수입한 수량은 냉동이 8,249톤, 신선이 703톤, 수입액은 냉동 신선 총 약 121억 엔이다. 올해 1~8월은 냉동이 1,14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신선이 451톤으로 30% 감소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유럽 참치 생산자들, IOTC에서 공동 입장 개진 NGO 규제 강화 요구에 기존 약속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4차 연례회의가 11월 2일에 개최되어 6일에 종료된다. 동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회의가 진행된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선박 당 FAD 숫자를 줄이거나 FAD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라는 NGO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 황다랑어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황다랑어 어획량 15% 감축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냉동 참치 생산자 조직인 ORTHONGEL,

스페인 참치 생산자 협회인 OPAGAC와 ANBAC에 따르면 유럽 참치 선망선들은 이미 황다랑어 어획량을 24% 줄였고 세이셸 등록 선박들은 15%를 줄였다고 한다. 3개 조직은 입장 발언에서 『2014년 이후 이란과 오만의 자망업자들이 각각 어획량을 80%, 130% 늘렸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규제 조치가 도입되기 전에 기존 규제들이 적절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11월 3일



스리랑카 소매 체인점, 참치 품질 평가 앱 사용

12년 이상 경력 전문가와 동일 주장

호주의 한 스타트업이 스리랑카 슈퍼마켓 체인에서 참치 AI 품질평가 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자금과 주요 파트너를 확보했다.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참치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GoMicro사의 기술은 핸드폰 거치 AI 현미경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진 수의 일부로도 패턴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GoMicro사의 설립자인 Sivam Krish는 일반적으로 수천장의 사진이 필요하지만 100여장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로도 참치와 같은 수산물물의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Krish는 『우리는 스리랑카에 스타 투자자 Jeevan Gnanam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100% 소유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GoMicro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동 소프트웨어가 참치 품질을 평가하는데 9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GoMicro사의 투자자인 Gnanam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전국 3대 슈퍼마켓 운영 업체 중 하나인 Keells사의 소유자인 John Keells에게 이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콜롬보에 소재한 슈퍼마켓에서 테스트 되

고 있으며 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스리랑카 전역 100여개 슈퍼마켓 매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참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유사한 AI 기술이 개발되었다. Dentsu사에서 개발한 Tuna Scope라는 프로그램은 참치 꼬리 단면 사진을 이용해 참치 품질을 분석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13일자

에콰도르 Jadran社 선망선 신조

내년 3월에 인도받을 예정, 길이 92m, 폭 14m

에콰도르 Grupo Jadran사가 길이 92m, 폭 14m의 참치 선망선 John Paul II호를 신조하여 2021년 3월에 인도 받을 예정이다.

Grupo Jadran사는 동 선박을 2018년에 발주했으며 투자 금액은 3,500만 달러에서 3,8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동 선박은 어창 용적 2,000m³로 1,500톤을 실을 수 있으며 선원은 35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21일자



일본 신선 오징어 10개월만에 마이너스

JF全漁連 전국 오징어 어획 8월 주력인 홋카이도, 산리쿠 저조

JF全漁連이 발표한 8월 일본 전국 살오징어 어획은 전년 동월에 비해 냉동은 증가했지만 신선이 부진해 합계로는 전년 동월보다 4% 감소한 3,824톤으로 집계되었다. 신선 물은 전월까지 혼슈, 동해지구가 순조로웠지만 주력인 홋카이도가 전전의 절반 이하로 저조한데다 산리쿠도 좋지 않아 전국 합계로는 17% 감소한 3,051톤에 그쳤다. 신선 어획이 전년에 비해 낮은 것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만이다.

한편 냉동은 2.5배인 773톤으로 신장되었다. 중형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의한 동해어장의 어획이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향상되었던 것이 반영되었다.

평균 단가는 신선이 9% 오른 kg 당 583 엔, 냉동이 8% 하락한 682 엔이었다.

냉동은 전년을 하회했지만 전월인 7월과 비교하면 신선, 냉동 모두 10% 정도 상승했다.

1월부터의 누계 어획 수량은 신선이 전년 동기에 비해 22% 증가한 1만 4,896톤, 냉동이 17% 증가한 2,147톤이고, 모두 전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합계로는 22% 증가한 1만 7,043톤이었다.

다만 주 어기는 9월 이후여서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누계 평균 단가는 신선이 1% 하락한 543 엔, 냉동이 24% 오른 841 엔이었다. 8월에는 아오모리를 중심으로 선동 빨강오징어 어획도 있었다. 수량은 569톤(전년 동월은 13톤),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35% 하락한 390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0월 22일자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에서 오징어 조업 건조

수십 년 만에 성어기 밝은 조짐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 섬(이키시)에서 9월 하순 이후 이 시기로서는 수십 년 만에 살오징어의 건조한 어획이 계속되고 있다. 이키시 勝本정 어협에 따르면 9월 24~30일 이 어협 관내에서는 총 3회 약 15톤, 1일 5톤씩을 어획했다. 전년 동기는 거의 어획이 없었다. 그 후, 10월 상순도 조업은 건조하다고 한다. 이 어협 담당자는 『오징어 조업에 밝은 조짐이다. 특히 대형 오징어가 많은데 놀랐다』며 『이제부터 시작될 성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키 섬은 후쿠오카시 북부 해안에 위치한 나가사키현의 낙도다. 이 섬은 예로부터 살오징어잡이업이 성행했었지만 최근에는 극심한 흥어가 계속되어 왔다. 나가사키현 종합수산시험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24~30일 나가사키현 근해 표면 수온은 23~25도 대로 예년에 비해 '많이 낮거나 약간 낮은'

편이다. 勝本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낚시로 오징어를 약 15톤 어획했다. 10월 1~7일 나가사키현 근해 표면 수온은 23~26도로 '매우 낮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의 어획량은 약 7톤이다. 거의 어획이 없었던 전년 9월 24일~10월 7일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 해당 산지 관계자는 『이해역의 낮은 해수 온도가 살오징어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형 선망 혼획 증가>

이키 지역에서 살오징어의 건조한 조업이 계속되는 한편 서일본 중대형 선망은 나가사키현 대마도 근해와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서쪽 근해 조업에서 10월 상순 살오징어 '혼획'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9일자



일본 신선 살오징어 주요 항구 2.5배인 3,400톤 1~22일 동북 저인망어선 중심으로 회복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0월 1~22일 일본 국내 주요 항구의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은 대홍어에 시달렸던 전년 동기의 2.5배인 3,396톤이었다. 중심은 「토호쿠(東北) 태평양 연안에서의 저인망 물」이라고 동 센터측은 밝혔다.

어획량이 많았던 상위 2개 항구는 이와테·미야코(842톤)와 미야기·이시노마키(443톤)로 모두 저인망이 주력이다.

특히 중순 이후(11~22일)에는 2개 항구의 하역이 전국 주요 항구 전체(1,590톤)의 40%를 차지했다.

10월 22일 시점 이시노 마키의 어체 사이즈는 1마리 130~460g으로 평균 213g이었다. 산란·수명(寿命)을 맞이하는 겨울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미야코 신선 어획량은 12배 이상, 이시노 마키도

4배 이상이다.

센터 측은 『조반~산리쿠 수역으로의 내유량이 개선된다는 어기 이전(수산 연구·교육 기관의) 예보와 일치하는 인상이다』고 밝혔다.

그 외, 10월 22일 시점의 집계에서 10월 어획량이 100톤 이상인 항구는 아오모리 하치노 헤(411톤), 홋카이도 쿠시로(318톤), 가나자와(189톤), 나가사키·마츠우라(187톤) 홋카이도 무로란(182톤) 등이다. 쿠시로는 이달 상순에 231톤이던 것이 중순 이후 87톤, 하치노헤도 이달 상순 406톤에서 중순 이후 5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앞으로 집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 오징어 어획 집계									
(단위 : 수량, 톤)									
구 분		8월				1~8월			
		선어	전년비	냉동	전년비	합계	전년비	합계	전년비
살 오징어	홋카이도	353	42%	78	100%	431	47%	1,651	75%
	산리쿠	1,685	74%		-	1,685	73%	3,596	86%
	동해	987	188%	695	370%	1,681	236%	10,119	159%
	큐슈	27	75%	1	13%	27	63%	1,677	132%
	합계	3,051	83%	773	249%	3,824	96%	17,043	122%
빨강 오징어	홋카이도	-	-	-	-	-	-	4	133%
	산리쿠	5	56%	563	14,075%	569	4,377%	4,037	109%
	기타	-	-	-	-	-	-	-	-
합 계		5	56%	563	14,075%	569	4,377%	4,041	109%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6일자



살오징어 남획 상태

중국, 일본의 10배 어획, 日 수산청이 자원평가 공표

일본 수산청은 10월 14일 살오징어(추·동계 발생 계군) 자원 평가를 발표하고 양 계군 모두 자원 수준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에 있다고 했다. 자원 평가에서는 중국의 어획량이 지난해 15만톤으로 추정되는 것도 처음으로 명기했다.

일본이 새로운 자원 관리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중국만으로도 일본의 약 10배에 상당한 어획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일본 수산청의 대응이 질책당할 것 같다.

살오징어 자원 평가는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가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주로 동해에서 어획되는 추계군의 자원량은 54.1만톤으로 지난 10년 최저치를 갱신했다. 친어량은 15만톤으로 남획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한계 관리 기준치 18.9만톤을 하회했다.

태평양 어획이 중심이 되는 동(冬)계군 자원량도 지난해처럼 되는 최저 수준인 18.9만톤이고, 친어량도 5.9만톤으로 한계 관리 기준치 13.2만톤을 하회했다. 추계군으로 10년 후에 최대 지속 생산량(MSY)인 27.3만톤을 실현하려면 5년 후인 2025년에 우선 한계 관리 기준(18.9만톤)을 50% 이상 확률로 상회하기 위한 내년 어획량은 6만톤으로 추산했다.

<피할 수 없는 중국의 어획 삭감>

다만 이번 평가는 자원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 어획은 2005년 이후만으로도 지난해 15만톤 수준의 어획을 계속하고 있는 실태도 명기했다.

동해에서의 일본 어획은 지난해 1만톤 조금 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어획 삭감 실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의 어획은 위성 화상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으로도 분명하다. 연간 700척에서 900척이 살오징어 조업에 나서 2017년, 2018년 2년간 최저로도 16만톤, 2019년으로는 7만 6,700톤을 어획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정부 계열 보도기관인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안 경비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칼 슐처 사령관은 9월 하순에 개최된 국제적인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실태를 비판했다. 일례로 중국 어선에 의한 북한 근해에서의 위법한 오징어 조업에 의한 남획을 들어 오징어가 멸종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0월 15일자

페루 올해 9월 어류 하역량 81% 증가

대왕오징어 136% 증가

페루 생산부 장관인 Jose Salardi에 따르면 올해 9월 페루에 등록된 어류 하역량은 15만 6,400톤으로 2019년 9월 하역량 8만 2,200톤에 비해 81%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사람이 소비하는 어종의 하역량은 멸치 71.3%, 대왕오징어 136.3%, 전갱이 335%, 보니또 301.3%, 고등어 1,247.3%가 증가했다. 하역량 증가는 가

공과 유통의 증가로 이어져 캔 가공품 126.8%, 냉동 124.8%, 선어 13.8%, 염장·건조 등 기타 가공 29.2%가 증가했다.

반면 페루 남부 연안의 좋지 않은 기후 및 해양 환경으로 인해 간접 소비를 위한 멸치 하역량은 없었다.

* 기사 출처: andina, 2020년 10월 29일자



살오징어 “자원 회복 위해 대폭 생산 감소해야” 일본 수연구소기구 자원 평가안, 관계국 전체로 어획 과잉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수연구소)는 10월 14일 살오징어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평가안을 제시,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총 어획량을 크게 삭감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만약 2030년까지 목표인 친어량까지 50%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을 경우 가을에 태어난 개체군은 올해 예측 어획량보다 62% 적은 5만 4,000톤 정도, 겨울 출생 개체군은 올해 예측 어획량보다 82% 적은 8,000톤 정도로까지 어획 페이스(β)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주로 동해에서 잡히는 추계 발생 계군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획량(MSY)=연간 약 27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32.9만톤의 친어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9년 시점의 추정 친어량은 15만톤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어획도 많기 때문에 현재의 어획압(바다에 있는 자원 중 어획되는 것의 비율)으로는 목표한 친어량에는 도달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태평양 연안 어획 주력인 동계 발생 계군은

MSY=올해 15만톤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 23.4만톤의 친어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시점의 추정 친어량은 5.9만톤으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가 어획하고 있으며, 역시 현재의 어획 압으로는 목표 친어량에 도달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어느 계군이라도 환경 조건이 나쁜 점 등에서 근년의 자원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어획 압이 계속된 경우에도 환경 조건이 개선되면 자원은 어느 정도 회복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의 어획 압이 내려가지 않는 한 회복 폭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자원 평가안은 향후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단지, 현 상태로 각 어업국을 묶는 국제적인 관리 구조는 없고, 곧바로 어획을 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오징어의 수명은 1년으로 짧고, 해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자원량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장래 예측도 빗나가기 쉽다. 몇 세대 앞을 노려 자원 관리를 한다 해도 10년=10세대 앞을 읽는 것은 어렵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6일자

일본 10월 살오징어 동해 중앙부에서 분포 증가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 발표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는 10월 30일 조사선 白山丸이 10월 13~20일까지 동해 중앙부 (대화도 주변)에서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역 해역까지 실시한 동해 오징어 어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센터는 『정점조사(定点調査)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올해 10월 동해 중앙부의 오징어 분포량은 전년 동기 및 지난 5년 평균을 상회했다. 살오징어 분포 밀도의 지표가 되는 채낚기 1대 1시간당 어획량을 나타내는

CPUE는 0~30 마리였다. 아키타현 연안과 오시마 반도 서쪽 연안에서는 거의 어획되지 않았지만 동해 중앙부에서 비교적 많이 어획되었다. 동해 중앙부의 평균 CPUE는 18.2 마리로 전년 동기의 11.7 마리 및 지난 5년 평균인 13.9 마리를 웃돌았다.

살오징어 어체 사이즈의 지표가 되는 외투장 평균치는 22.4cm로 전년의 20.3cm를 상회했지만 지난 5년 평균인 22.8cm를 약간 하회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4일자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약세 순조로운 어획 및 코로나로 거래 둔화

올해 해외 오징어 생산 동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미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남미 빨강오징어)가 페루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어획이며 아르헨티나(AR) 마즈리카(반디꼴뚜기)는 전년 대비 90% 증가로 크게 신장된 것 같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시세는 하락하고 있어 일본 업체에게는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

한편, 러시아산 살오징어는 9월까지의 전년을 하회하는 어획으로 10월에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가 관심 사항이 될 것 같다.

남미 빨강오징어는 칠레, 페루에서의 어획이 중심이다. 칠레는 전년의 5만톤을 상회하는 10만톤을 어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판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한 채 끝났다』고 상사 관계자는 밝혔다.

페루는 순조로운 어획이며 매년 7~11월에 어획량이 감소하지만 올해는 일정량이 계속 잡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50만~60만톤을 어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어선들의 어획도 포함해 합계로 100만톤을 넘을 것 같다.

페루 물 시세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등 코로나 재난에 의한 거래 둔화 등도 있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에 몸통이 kg 당 2 달러 30 센트(C&F) 귀가 1 달러 90 센트(C&F)였지만 최근에는 각각 1 달러 50 센트와 1 달러 못 미치는 가격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다.

다만 많은 제조업체들이 연초에 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서 일본 업체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

상사 관계자들은 『11, 12월의 시황을 보고 구매할 것 같다』고 밝혔다.

<AR 마즈리카 회복 조짐>

아르헨티나 마즈리카는 200 해리 EEZ 내와 공해 어획량을 포함해 35만톤 정도를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년의 18만톤을 크게 넘어섰다. 어체도 1마리 300~400 그램, 400~600 그램 중심으로 사이즈도 양호하다.

상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흉어를 벗어난 것 아닌가? 내년에 50만톤이 잡힐 경우 회복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는 100만톤 규모로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마즈리카(반디꼴뚜기) 흉어가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급등 요인이기도 했으므로 내년 이후 더욱 어황이 회복되면 해외 오징어 시세는 훨씬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오징어 9월 1만톤>

또한 최근 일본 국내 어획량이 매우 저조한 살오징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산이다. 2019년 1만 6,000톤의 어획이 있었다. 지난해보다 조업선이 늘어난 올해는 9월말까지 1만 1,000톤을 어획했다.

상사 관계자는 『척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뒤쳐져 있는 느낌이다. 올해는 2만톤 정도로 보고 있었지만 10월의 어황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어획은 예년 11월 중순 무렵까지 계속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알래스카 명태 B 시즌 저조한 채로 마무리 되어가 연육, 필렛 생산량 급감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베링해에서 열악한 조업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른 시점에 조업을 서서히 줄여왔다. 미국에서 주요 냉동 명태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원물 생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연육 생산은 2019년 총생산량에 비해 16.5%, 껍질과 지방층 제거 제품(deep-skin)은 2019년 동기 대비 14.4%, 가시제거 필렛(pinbone-out, PBO)은 2019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한 알래스카 어업 회사의 임원은 『B 시즌 조업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약 1주일 전에 조업을 중단했고 쿼터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

이 임원은 조업 조건이 몇 주 전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B 시즌에 어류 크기가 작고 자원이 넓게 퍼져있어 조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명태 크기가 작아 어분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졌다』며 조업 시즌이 끝날 때까지 조업 조건이 변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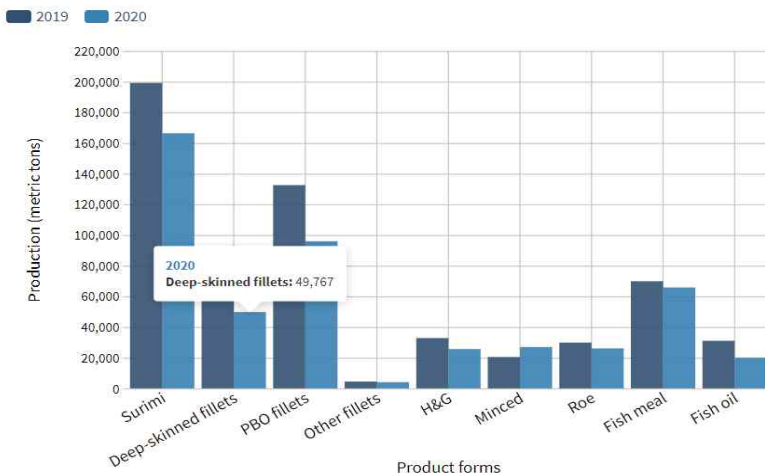
B 시즌이 끝나면 주요 제품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예상 생산량 75만 7,651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이번 B시즌 어획물로 가공한 가시제거 필렛을 지난 7월 가격인 톤당 3,500 달러에서 3,600 달러에 이미 계약했다. 생산자들은 2021년 가격을 언급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 저서어류 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명태 어획량은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러시아 명태 어획량이 7.6% 증가, 총 188만 4천톤으로 추정되어 전 세계 어획량 증가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은 150만 7천톤 유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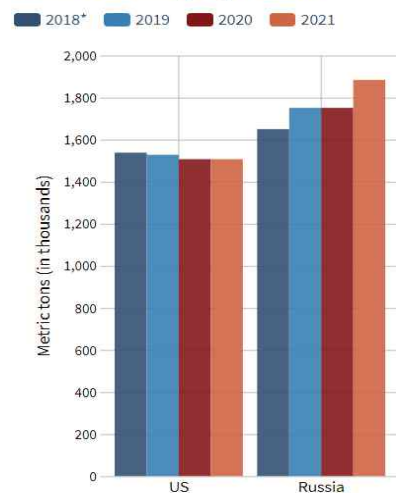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0월 26일자

Production of major frozen pollock as well as fish meal and fish oil

Surimi continues to dominate product forms in 2020's B season.



Pollock catch projections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0월 26일자



미국 베링해 명태 B시즌 어획 부진

B시즌 종료, TAC 5~6% 미소진 예상

베링해에서 험난했던 알래스카 명태 B시즌이 총 허용어획량(TAC)의 일부를 소진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최종 생산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B시즌(6.10~10.31)에 할당된 TAC 75만 7,651톤 중 5~6% 정도가 미소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4척의 명태 트롤선으로 베링해에서 조업하는 Global Seas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Bob Desautel에 따르면 평년보다 명태 크기가 작아 어려운 시즌이었다고 한다.

올해 베링해 A시즌과 B시즌을 합한 TAC는 142만 톤으로 2019년 139만톤, 2018년 134만톤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모든 명태 제품의 생산량은 B시즌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 협회(GAPP)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19년도에 연육 생산량이 거의 20만 톤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올해 생산량은 17만 3,821톤 정도이다. 올해 가시 제거 필렛(pin-bone-out fillet) 생산량은 10만톤 조금 넘어 지난해 13만 3,530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 fillet)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9톤 정도 차이를 보인다.

어분 생산량은 크기가 작은 명태가 풍부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7천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40년 동안 베링해 명태 어업에 종사한 Desautel에 따르면 작은 명태의 수가 많다는 점은 즉각적이

지는 않지만 밝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

Desautel은 다음 A시즌에 산란을 앞둔 크기가 더 큰 어군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다음 B시즌은 2년~3년생 명태가 많이 보이고 이상적인 크기의 명태가 부족한 올해와 비슷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명태가 1년에 75~100g 정도 자란다고 설명하며 이번 시즌에 많이 보인 300g의 명태가 내년에는 400g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2022년에 이러한 명태 중 일부가 400g 수준으로 자라 어획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며 『베링해에서 어선들이 타겟으로 하는 궁극적인 크기는 600~900g이다』라고 말했다.

United Catcher Boat사의 Brent Paine 전무이사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조업 시즌 시작이 미루어지고 물류가 복잡해졌으며 부수어획 문제도 어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 협회(GAPP)의 Craig Morris CEO는 TAC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을 너무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orris CEO는 『2011년에 어군이 분산되어 TAC 소진에 실패했으나 2012년에 TAC를 모두 소진했다』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2021년에 알래스카 명태 쿼터의 전량 소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0년 11월 9일자



러시아 2021년 명태 쿼터 0.1% 상승한 199만 6천톤 과학자들 2023년에 자원 급격히 감소 경고

러시아는 2021년 명태 총 허용어획량(TAC)을 올해 199만 4천톤에 비해 0.1% 증가시킨 199만 6천톤으로 결정했다. 주요 조업 구역인 오호츠크해의 2021년 명태 TAC는 올해 106만 4천톤과 비슷한 106만 1천톤으로 결정되었다. 서부 베링해 조업 구역의 TAC는 올해에 비해 7% 상승한 41만 5천톤으로 설정되었다.

연방해양수산연구소 태평양지부(TINRO)의 과학자들은 올해 북부 오호츠크해 총 명태 생물량(biomass)을 전년도 보다 많은 1,500만톤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까지 오호츠크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2017~2019 세대의 명태 생물량 부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오호츠크해 명태 자원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말 러시아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TINRO는 자원량 감소와 어선 조업 능력 증가로 5년 뒤에 명태 TAC가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명태생산자협회(PCA)는 명태 쿼터가 2024년까지 15~20% 감소하여 160~165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구역의 2021년 명태 TAC를 살펴보면 Karaginsky 조업 구역은 38.2% 증가한 2만 2,500톤, Petropavlovsk-Komandorsk 조업 구역은 7.5% 감소한 8만 2,800톤이다. North Kuril 조업 구역은 6.8% 감소한 10만 3,300톤, South Kuril 구역은 17.9% 감소한 11만 6,700톤이다. Chukotka 조업 구역은 올해 4,800톤에 비해 2,000톤 증가한 5,000톤으로 설정되었다. 축치해는 TAC가 처음 설정되었던 올해보다 45.3% 감소한 3만 7,200톤으로 정해졌다.

Primorye 조업 구역은 19.2% 감소한 2만 3,200톤이다. West Sakhalin 조업 구역은 14.2% 증가한 4,000톤으로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0월 28일자

Russian Fishery 올해 명태 생산량, 계획보다 앞서 기록적 어획량 기록한 지난해 보다 6천톤 증가

Russian Fishery Company(RFC)는 올해 9개월 동안 25만 5,000톤을 어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록적인 어획량을 보인 2019년 보다 6,000톤 많은 수치이다. RFC 발표에 따르면 자사 명태 어획은 9월말까지 23만 1,000톤 이상 잡아 2019년 동기 대비 1만톤 증가했으며 연간 쿼터 28만 3,800톤 중 80% 이상을 소진했다고 한다.

아울러 명태 필렛과 다진 어육 생산량이 2019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고부가가치 명란도

18% 증가하는 등 고수익,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RFC는 러시아, 중국, 한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며 스페인, 튀니지에 새로운 청어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국내 시장에 명란을, 싱가포르에 명태 필렛을, 폴란드에 머리 및 내장 제거 명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0년 10월 15일자



일본, 명태와 임연수어 어획 증가 가능 발표 일본 수연구소기구, 자원 평가 업데이트

일본 농수성은 10월 14일 수산 연구·교육기구 등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임연수어 도호쿠 계군, 명태, 대게에 대한 자원 평가를 갱신해 발표했다.

임연수어 도호쿠 계군과 명태 태평양 계군, 명태 동해 북부 계군, 대게 동해 계군 A해역(서부)은 현재보다 어획량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임연수어 도호쿠 계군은 2019년 환경 조건이 좋아서 0세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2019년생 어군은 2021년에 성숙해 친어가 되기 때문에 그 산란으로 후에 자원 어획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어획압(바다에 있는 각 연령 자원 중 어획되는 것의 비율)에서도 자원은 완만하게 회복하지만 어획 증가 방식을 자제함으로써 보다 높은 확률과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연수어는 친어량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0세어의 발생이 적어지기 쉽다. 같은 계군에서 장기적으로 어획량을 최대한 얻기 위한 목표인 친어량은 11.2만톤으로 2019년의 추정 친어량은 2.4만톤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군을 늘리는 것으로 자식 세대의 발생을 늘리기 쉽다고 본다』고 수연구소기구 관계자는 밝혔다. 목표인 친어량을 10년 이내에 55%의 확률로 달성하는 어획 수준($\beta=0.9$)이고, 내년은 올해(추정치)보다 31% 증가한 5.1만톤까지 어획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 동해 북부 계군은 2019년의 추정 친어량이

5.6만톤으로 목표인 38만톤에서 멀지만 잠정적으로 17.1만톤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면 10년 후에 51%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beta=0.9$ 가 된다. β 를 0.9로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8% 늘어난 7,900톤의 어획이 가능하다. 이 속도로 순조롭게 자원이 회복되면 2023년에는 1만톤 이상까지 어획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친어량이 30.2만톤으로 목표인 22.8만톤을 초과하는 명태 태평양 계군은 10년 후에 58%의 확률로 목표인 친어량을 유지할 수준($\beta=0.9$)을 채택할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84% 많은 20.8만톤을 어획할 수 있다. 명태 태평양 계군은 금년 상반기 시점으로 내년의 어획량 삭감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3~4세어 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획을 늘리기 쉬운 방향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대게 동해 계군 A 해역은 친어량 4,100톤이 목표인 3,000톤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게가 바다에 일정량 머물다 내년 이후 어획 사이즈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획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9년 후 목표를 58% 달성하는 어획 수준($\beta=0.9$)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많은 3,500t을 어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명태 가운데 쿠나시르 해협에 내유하는 군과 동해 A 해역 이외의 대게는 데이터 부족으로 장래의 어획 예상과 최대 지속 생산량(MSY)을 산출하지 못했다.

명태(동해 북부 계군) 장래 평균 어획량

단위 : 천톤

β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1.0	5.2	6.7	8.8	9.3	11.5	14.1	14.1	15.0	15.6	16.4	17.7	18.6	19.5
0.9			7.9	8.5	10.7	13.2	13.2	14.2	14.8	15.6	15.6	17.8	18.7
0.8			7.1	7.7	9.8	12.0	12.2	13.2	13.8	14.6	14.6	16.8	17.8
0.7			6.2	6.9	8.8	10.9	11.2	12.1	12.7	13.5	13.5	15.7	16.6

* 출처 : 일본 농수성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6일자



산리쿠 콩치 어획량 증가 3,352톤

전월 대비 90배, 선어, 냉동 모두 강한 수요

산리쿠에서 신선 콩치 어획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이와테현 미야코항, 가마이항, 오후나토항, 미야기현 게센누마항, 오나가와항을 합산한 10월 1~29일의 총 어획량은 전월 대비 90배인 3,352톤. 10월에 들어 어장이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으로 남하하여 각 항구에서 하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지 시세는 10월 후반부터 하락하기 시작, 현지 생선가계와 냉동 가공업자로부터의 거래 문의가 두드러졌다. 중심 사이즈는 1마리 100~130g이다. 그러나 전년 동월 어획 실적에는 약 30% 정도 못미쳤다.

산리쿠의 주요 어획 항구인 오후나토항의 8월 1일~10월 30일 누계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777톤이었다.

8월 29일 첫 어획 이후 9월의 평균 위판가는 kg당 1412 엔이었지만, 10월에 들어서면서 1000 엔을 밑도는 시세로 약세를 보였다. 1~30일의 평균 위판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한 kg 515 엔을 기록했다.

게센누마항에는 전년보다 1개월 이상 늦은 10월 10일 첫 양륙이 이뤄졌다. 1~30일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041톤. 1마리 100~130g의 중·소형이 주이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1마리 150g까지의 큰 사이즈 어획량이 전체의 10% 정도 있어 현지 음식점이나 생선 가게로부터의 거래 문의가 늘고 있다.

오나가와항에서는 전년보다 5일 늦은 10월 첫 어획 후 3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총 1,175톤을 어획했다. 이 항구 담당자는 『현지 냉동 콩치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영향으로 냉동용 수요가 높아지면서 선어용 출하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항구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후반에 들어서면서 첫 어획시보다 선도가 향상되었다. 한편, 지방은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30일 평균 시세는 첫 양륙시의 반값이 되는 kg 494 엔이 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일본 꿈치 AI 분석, 어장 86%가 예상과 일치

日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어장의 86% 예상과 일치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JAFIC)는 10월 29일 수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시작한 인공지능(AI)에 의한 꿈치 어장 추정에 대해 실용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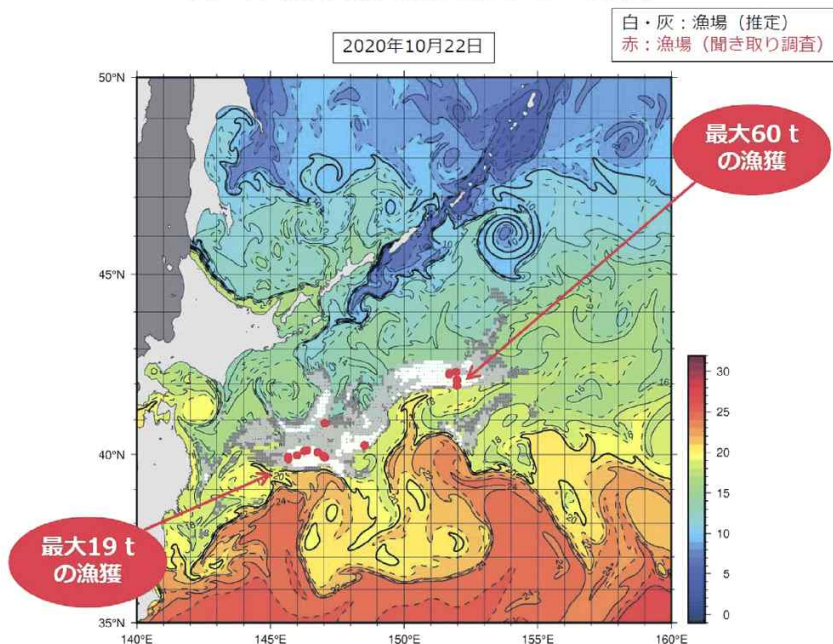
어장 추정은 일본 근해의 수온 분포와 자원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날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보 서비스 「에비스 군」에서 해도로 표시하고 있다.

어업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실제로 어획량이 있었던 어장의 86%가 예상과 일치한다.

가장 어획 기대가 강한 어장을 흰색, 이어서 기대할 수 있는 어장을 회색으로 표시한다. JAFIC 어업자 반응에 따르면 어장의 86%가 흰색 또는 회색 해역에 해당되었다.

JAFIC 담당자는 『올해 여기 일본에서 출어한 꿈치 어선 120척 중 76척의 어선에서 1,378 회(10월 27일 시점)의 다운로드가 있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싶다. 계속 예상 정확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月22日の漁場予測と実際の漁場 (JAFIC提供)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일자



일본 신선 콩치 어획량 연일 1,300톤 이상

산리쿠 중심, 위판가 상순부터 40% 하락

일본 콩치붕수망 신선 콩치 어획량이 드디어 집하되기 시작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집계에 따르면 10월 19일에 홋카이도 동쪽 산리쿠의 주요 항구에 1,330톤이 어획되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1,000톤을 넘어섰다. 10월 20일도 정오 현재 1,380톤(시사통신사 집계)으로 계속되었다. 흥어였던 지난해에도 1일 1,000톤 초과는 10월 19일이었다. 홋카이도 하나사키에 10월 19일 430톤, 20일 290톤 외에 이와테·오후나토에 각 350톤 전후, 미야기·케센누마는 10월 19일 130톤, 20일 270톤, 미야기·오나가와는 10월 19일 210톤, 20일 270톤으로 어획항구는 산리쿠가 중심이 되고 있다.

10월 19일 위판 항구의 평균 가격은 kg 당 492

엔으로 상순의 총 평균 789 엔 보다 40 % 떨어졌다.

이 센터에 따르면 어장은 하나사키 항에서 남남동 180~200 해리로 아슬아슬 하게 당일 치기도 가능한 해역이다. 중심 사이즈는 1마리 29~30cm, 110~120g으로 10월 들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의 신선 콩치 어획량은 8월이 겨우 174톤, 9월이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1,014톤으로 전년을 크게 밀돌고, 평균 kg 가격도 1,000 엔 이상이었다. 올해는 10월 19일까지 4,300톤, 평균 665 엔이다. 지난해 10월의 월간 어획량은 전년의 30%에 머무르는 1만 6,000톤이었지만 올해는 한층 더 밀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1일자

콩치 조업 드디어 활기

일본 전국에서 연일 1,000톤 이상

일본의 콩치 조업은 지난 10월 19일과 20일 2일 연속으로 전국 어획이 1,000톤을 넘어서는 등 뒤늦게 활기를 띄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슬로우 페이스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JAFIC)의 어획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10월 19일에는 도우토우의 하나사키와 쿠시, 산리쿠의 오후나토, 케센누마에서 이번 어기 처음으로 4자리 수인 약 1,460톤을 어획했다. 일본 전국 콩치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어 10월 20일에도 도우토우, 산리쿠에서 약 1,400톤의 어획을 기록했다.

JAFIC 도우토우 출장소에 따르면 목하 어장은 동해 수역, 러시아 수역, 공해의 경계 부근으로 여기에서 어군이 발견된 것이 어획 볼륨 증가로 이어졌다.

대형 어선에 더해 중, 소형 어선도 조업에 나서 생산 현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위판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20일 하나사키 바라(벌크)물 가격은 kg당 302~637 엔으로 고가는 17일에 비해 14% 떨어졌다. 다만 17일부터 19일에 걸쳐 하루 어획량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어획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도우토우 출장소에서는 『향후 어군은 풍부하지 않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어군을 찾아 잡고, 또 찾고 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어체는 약간 140~150g 등도 섞여 있지만 대다수는 100g 대 전반의 중소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어선은 좋은 크기를 볼 수 있는 공해로 향했다는 정보도 들려오고 있어 어장, 어획 안정화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1천톤대 어획은 시즌 어획이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10월에도 네 자리 수 기록했고, 결코 많지 않은 볼륨이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0월 22일자



꿈치 세계적으로 여름철 금어 필요

日 수산청 의견 교환회의, 어업자들 북태평양 자원 위기감

일본 수산청은 10월 15일 2021년 어기(내년 1~12월)의 꿈치 총 허용어획량(TAC)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회의를 갖고 21년 어기 대해 TAC를 현 어기와 마찬가지로 26만 4,000톤으로 하는 임시안을 선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잠정 수량에 대한 이의는 거의 없었지만 향후 꿈치 국제 자원 관리에 대해 어업자들은 최근 꿈치 흥어에 따른 자원 상태의 위기감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향후 1, 2년은 6, 7월에 관계국이 각각 전면 금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수산청은 이에 대해 『소형어에 대한 새로운 보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꿈치는 국제적인 틀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 대만, 중국 등 8개국이 참가하는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서 전체 어획량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번 어기의 상한은 55만 6,250톤으로 그 중 공해의 총 어획 쿼터는 33만톤이다. 일본이 설정한 꿈치 TAC는 2015년 어기 이후 26만 4,000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잠정 안대로 되면 7어기 연속 그대로이다.

이날 의견 교환회의에서는 수산 연구 기관의 담당자가 꿈치의 자원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2016~2018년의 자원량이 최대 지속생산량(MSY) 수준을 밑돌아 전체 자원량 중 어느 정도 어획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획압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자원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 노력량 당 어획량(CPUE)은 2017년에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꿈치의 자원량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어획과 환경 요인’이 있다고 했다.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조정과의 廣野淳 과장은 잠정 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2월로 연기된 NPFC 연례 회의에서 어획 쿼터 설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가 결정될 경우 결정 사항을 고려하여 TAC를 개정하기로 했다.

수산청 자원관리부 국제과 福田工 어업교섭관은 꿈치 자원의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낸 뒤 『(이번 TAC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린다는 잠정적인 것이다. (세계의) 총 쿼터가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자원 관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C 수치는 10월말의 수산정책 심의회 자원관리 분과회의의 논의를 거쳐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답신, 결정한다.

11월에는 NPFC 과학위원회가 웹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이 자원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2월 연례 회의에서 각국이 어획 쿼터를 토론한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연례 회의는 대면 형식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원 관리 조치가 연례 회의에서 결정될 경우 다시 해당 분과회의의 논의를 거쳐 TAC를 설정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9일자





日 주요 수산 식품 회사 모두 매출 감소, 수산 고전

4개사 2020년 4~9월기 연결 실적, 魚価 침체 어획량 감소 영향

일본 수산·식품 대기업 4개사의 2020년 4~9월기 연결 실적은 전사가 매출이 감소되었고, 영업 이익은 日本水産을 제외한 3개사가 증가를 달성했다.

각사 모두 신종 코로나 재난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침체, 업소용이 고전했다. 양판점용 판매는 증가했지만 매출을 커버할 수 없었다. 이익 면은 極洋을 제외하고 수산 부문 고전이 눈에 띄었다. 魚価침체와 어획량 감소 영향이다.

연간 전망은 마루하니치로가 미정이었던 예상치를 공표했으며, 日本水産과 니치레이는 예상치를 수정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분기마다 예상치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日本水産은 다음 분기 중 계획의 1년 연기를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는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사업은 각사 모두 고전했다.

마루하니치로는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와 양식어 판매 감소, 가격 하락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日本水産은 국내 어업, 양식 사업 모두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도 줄었다. 참치 양식은 태풍에 의한 대량 폐사가 발생해 원가가 상승했다. 極洋은 해외 선망 가다랑어 어가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수지가 악화되었다. 양식 참치 사업은 수지가 개선되었다.

수산 상사 관련 사업도 어가 침체와 외식, 업소용

판매 부진으로 고전했다. 極洋을 제외한 3개사가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었다.

마루하니치로는 참치, 가리비 등의 판매 저조, 日本水産은 연어·송어, 방어의 판매 가격 하락, 니치레이는 주력인 새우를 중심으로 한 판매 감소를 부진 이유로 꼽았다. 極洋은 매출이 감소했지만 전 분기에 손실을 낳았던 연어·송어 이익률 개선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각사 모두 매출 증가가 이어졌던 식품 관련 사업은 한계를 드러냈다. 가정용 냉동 식품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업소용 침체를 커버할 수 없었다. 수산 반죽 제품도 양판점 전용은 호조였으나 외식용은 침체를 보였다. 상온 식품인 통조림은 지난해 같은 고등어 캔 붐을 보이지 않았다.

해외 사업은 마루하니치로가 태국의 펫 푸드 사업이 코로나 특수도 있어 호조였다. 日本水産은 폐쇄 조치에 의한 유럽에서의 판매 감소 등 매출이 감소했다. 니치레이는 미국 자회사에서 가정용 제품 조달처를 확대해 거래가 신장되었다. 極洋은 가리비 등의 수출 판매가 부진했다.

연간 계획에 대한 중간 분기 연결 진행 비율은 매출이 43~49%, 영업 이익은 33~69%로 나타났다. 매출은 日本水産과 니치레이의 49%, 영업 이익은 마루하니치로의 69%가 가장 높았다.

주요 수산식품 4개사 2020년 4~9월기 실적(연결)

(단위 : 수)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엔	증감률(%)	백만엔	증감률(%)	백만엔	증감률(%)	백만엔	증감률(%)
마루하니치로	415,776	-7.0	10,390	5.0	11,987	4.3	3,654	-55.0
日本水産	320,819	-7.1	6,968	-37.1	8,959	-26.2	5,034	-35.7
니치레이	281,762	-3.5	16,745	11.7	17,033	10.7	10,875	14.4
極洋	116,861	-7.9	1,379	87.6	1,505	33.4	1,577	122.1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9일자



홋카이도 어선 통계 2019년 2% 감소한 2만 3,686척 감소 멈추지 않아

일본 홋카이도 수산업부가 최근 등록 어선을 분류 집계한 어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도내 어선 세력은 총 2만 3,686척(전년 대비 2% 감소)이었다.

내역은 해수면 어선이 2만 3,576척(동력선 2만 3,540척, 무동력선 36척), 내수면 어선이 110척(동력선 108척, 무동력선 2척). 등록 선박의 99%를 차지하는 해수 동력선이 1년에 432척 감소했다.

1980년(昭和 55) 피크 때는 5만 1,138척이었지만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1977년의 200 해리 어업 전 관 구역 설정 등 국제 어업 환경의 변화, 어획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해수 동력선 톤수별로는 5톤 미만 85.4%(2만 97척), 5~20톤 미만 14.1%(3,315척), 20~50톤 미만

0.2%(36척) 50톤 이상 0.4%(92척). 船質은 FRP 선이 94.6%(2만 2,258척)를 차지한다. 단, 20톤 이상의 선박은 강선이 주력으로 세력을 양분했다.

최근에는 FRP선의 폐선 처리비용이 막대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경합금제 어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업별로는 다시마와 가리비 등 採介藻漁業이 1만 189척(43.3%), 자망어업이 6,793척 (28.9 %), 정치망 2,366척(10.1%), 일본조 2,264척(9.6%) 등이다. 해역별 세력은 쿠시로·네무로 히다카를 포함한 태평양 49.6%(1만 1,672척), 동해 37.8% (8,895척), 오후츠크 12.6%(2,973척)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홋카이도 수산업부 수산물 수산 관리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홋카이도 어선 동력										
(단위 : 수)										
구 분		해수면 어선			내수면 어선			합계		
		동력	무동력	계	동력	무동력	계	동력	무동력	계
2019년		23,540	36	23,576	108	2	110	23,648	38	23,686
2018년		23,973	35	24,008	10	2	111	24,082	37	24,119
2008년		30,062	51	30,113	423	4	42	30,485	55	30,540
1998년		38,622	64	38,686	422	6	428	39,044	70	39,114
1980년		51,138	1,807	52,945	461	35	496	51,599	1,842	53,441
대비 (%)	2019/2018	98.2%	102.9%	98.2%	99.1%	100%	99.1%	98.2%	102.7%	98.2%
	2019/1980	46.0%	2.0%	44.5%	23.4%	5.7%	22.2%	45.8%	2.1%	44.3%
18년 전국 척수		218,720	3,764	222,484	6,071	1,949	8,020	224,791	5,713	230,504
18년 홋카이도/전국		11.0%	0.9%	10.8%	1.8%	0.1%	1.4%	10.7%	0.6%	10.5%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9일자



스시로 홀딩스 사명 변경

내년 4월 1일 적용, 해외 진출과 M&A 강화

회전 초밥 대기업인 아키토 스시로를 산하에 두고 있는 스시로 글로벌 홀딩스는 11월 6일 회사명을 'FOOD & LIFE COMPANIES'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내년 4월 1일자다.

주점과 대만 차 전문점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 진출과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 水留浩一사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M&A(인수합병)도 시야에 넣고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12월 24일 주주 총회에 부의해 정식으로 결정한 다. 이밖에 水留浩一사장의 8명 전원을 사외 이사

로 한다. 경영과 업무 집행을 분리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사회는 보다 전략적인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水留浩一사장은 말했다. 3명을 여성으로 채워 여성의 관점을 경영에 도입한다.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해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

이 회사가 11월 6일 발표한 2020년 9월기 연결 결산(국제 회계 기준)은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2.9% 증가한 2,049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기존 점 매출은 5.1% 감소했지만 신규 출점 및 배달 강화가 주효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9일자

마루하니 치로 알래스카 연어·송어 사업 철수

미국 피터팬사를 연말에 매각

일본 마루하니 치로는 10월 2일 미국 자회사 피터 팬시 푸드(워싱턴, PPSF)사의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체결일은 10월 31일이다. 12월 31일자로 매각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마루하니 치로는 매각 대상인 미국 수산물 가공 판매 회사 노스 웨스트 피쉬 컴퍼니와 생선품 매입 협상 계약을 체결하고 PPSF 제품을 계속 취급할 예정이다.

PPSF사는 미국 알래스카주에 보유하고 있는 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베니사케(홍연어), 카라후토마스 등의 수산 가공·판매를 해왔지만 최근 신규 생산자 진입에 따른 원료 여가 급등, 집어 부족으로 인한 고비용·생산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이 계속 되고 있었다. 이 회사 수산 사업(2020년 3월기 연결 소거 후) 매출액은 157억 6,500만

엔, 영업 손실은 22억 300만 엔이었다.

앞으로도 회사의 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마루하니 치로는 알래스카 연어·송어 사업에서 철수를 도모하고 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PPSF사 소유 전체 공장, 기타 고정 자산을 포함한 수산 사업 매각 계약에 이르렀다고 한다.

PPSF사 양도에 따라 마루하니 치로는 10월 2일 공표한 2020년 4~9월기 연결 실적에서 약 30억 엔을 특별 손실로 계상했다.

또한 회사 양도에 따른 수입에 의해 발생하는 자금(부채 공제 후)은 4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어 향후 신규 투자와 그 외 더 효율적 경영을 위한 용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4일자



日 불법 어획물 유통 방지 적정화 방안 승인 수입 오징어·꽂치, 국산 전복·해삼

일본 자민당 수산 부회 수산 종합 조사위원회는 10월 21일 도쿄 도내의 당 본부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승인했다.

일본 수산청은 이 법의 운용 방침을 일부 설명하고 수입품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물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오징어와 꽂치, 일본 국내산 상품에 이력 추적(출처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상으로서 전복이나 해삼을 각각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2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산품, 수입품 각각에 대해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정부가 지정하고 불법 제품이 아니라고 증명되지 않는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국산품

대상 종은 어업자 신고제를 취하면서 대상 종의 거래업자에 대해 신고 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수입품 대상 종인 라운드(원어) 또는 그 어종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세관에 적법한 어획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JF全漁連은 이 법안에 의한 불법어업 방지 및 국제 IUU 근절 효과를 기대하면서 『어업자와 어업협동조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 정비 등에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대일본수산회는 『어업자 및 유통 관계자의 노고가 많다. 대상 어종을 엄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러 가공 유통 단체는 사무 부담 경감 지원과 제도 주지 철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3일자

이집트,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철폐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규제 모두 폐지

일본 농림 수산성은 11월 4일 이집트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이어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붙이지 않고 47개 도,도,부,현의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철폐는 11월 2일자다.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사고 직후 54곳에서 18곳으로 줄었다. 2019년 이집트용 출하 금액은 고등어를 중심으로 약 30억 엔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6일자



일본 신선 고등어류 10월 조업 저조 전망 전반 2% 감소, 태평양 魚影 없고 동지나해도 부진

일본 신선 고등어류(참고등어, 망치 고등어 포함)의 어획량은 9월 이후 저조한 추세다.

일본 어업 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6~8월의 어획량은 전년 동기를 상회하는 수량을 보였었지만 9월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한 6,739톤으로 전년을 밀돌았다. 10월 들어서도 어획 저조가 이어져 1~15일은 2% 감소한 2,489톤이었다.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태평양 측은 어군이 거의 없다. 동지나해 측 어장에서는 자원량은 있지만 어선은 전갱이를 우선시 해 고등어를 별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10월은 전년을 하회하는 어획량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태평양에서는 『최근 수년간 어군의 남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러시아 해역에 있

는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수온의 저하와 함께 남하가 진행되어 11월 중순~하순에 토후쿠 연안으로 몰릴 것이라고 한다.

이 센터는 『자원량이 있기 때문에 11월은 2세어 중심으로 어획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지나해 측의 어장은 대마도~규슈 서쪽 연안 해역이다. 이 센터에 따르면 어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어획 자체는 지속적으로 있는 반면 어획량이 적고, 전년을 밀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 사이즈는 대마도 해역 측에서는 30cm(추정 3세어), 규슈 서쪽 연안은 23~25cm(추정 2 세어, 일부 1세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9일자

日·英, EPA 합의... 수산물은 對 EU와 같은 내용 일본 농림 수산성, 합의 내용 설명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라 일본과 영국의 대표자가 日·英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日·英 EPA)에 10월 23일에 서명한 것을 받아 일본 농수성은 이 협정의 수산물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EU EPA와 같은 내용이다.

일본 측의 관세에 대해서는 김, 다시마 등 해조류가 관세감축 및 철폐에서 제외되고, 전갱이와 고등어 등은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기로

합의한 日·EU EPA와 같은 내용이다.

영국 측의 관세에 대해서도 수산물 등 주요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에 합의한 日·EU EPA의 내용을 유지한다.

이 협정은 앞으로 양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영국의 EU 탈퇴 후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9일자



일본, 문어 연말 위한 수량 확보

모리타니아産 대일 문어 수출, 전년 수준인 4,700톤

서부 아프리카의 문어 하절기 어획물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다. 최대 수입처인 모리타니아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예년 수준의 수량을 매입, 연말 판매 경쟁을 위한 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타니 수산물무역협회(SMCP)가 최근 발표한 11월 23일까지의 냉동 문어 대일 가격(톤 당 가격, FOB, 중개료 별도)은 일률적으로 이전(9월 9일~10월 8일) 가격으로 동결되었다. 한편 별도인 중개료를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상사 관계자는 밝혔다.

어려운 조건과 유럽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순조로운 일본 국내 소비를 배경으로 일본 업체는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사이즈는 소형인 6~7번이 중심이다. 누아디브(Nouadhibou)와 누악쇼트(Nouakchott)를 합한

모리타니의 대일 문어 수출 총계는 약 4,700톤으로 전년과 같은 정도의 양을 확보했다. 일본 상사 관계자는 모로코 물량의 매입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은 양을 확보한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

동계 조업 해금은 모리타니 단지 조업이 11월 15일, 트롤 조업이 12월 1일이고, 모로코의 조업은 내년 1월 1일이 될 전망이다.

문어는 내식 수요 증가 등으로 할인점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재고도 감소 추세다. 동계 어획물 반입은 빨라도 3월 경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소비 동향에 따라서는 원료 양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4일자

냉동 새우 8월 수입 4% 감소한 1만 4천톤

평균 단가 5% 하락한 1,012엔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8월 냉동 새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1만 3,807톤이었다. 이 중 바나메이(흰다리새우)와 블랙 타이거 등 비 냉수계는 3.2% 감소한 1만 3,102톤이었다. 아파에비(단새우) 등 냉수계 새우는 15.7% 감소한 705톤이었다. 격감했던 5월 이후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kg당 평균 단가는 4.9% 하락한 1,012 엔이었다.

주요 국가 별 수입량은 인도가 1.8% 감소한 5,258톤, 베트남이 5.1% 감소한 2,542톤, 인도네시아가 8.2% 감소한 1,819톤, 태국은 28.9% 감소한 862톤이었다. 아르헨티나는 3.6% 감소한 678톤이었다. 가공품은 11.1% 감소한 4,483

톤이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자숙·초밥 새우가 27.6% 감소한 1,198톤이었다.

베트남에서의 수입량이 30% 줄었다. 새우 튀김은 1.9% 감소한 3,120톤이었다. 중국이 58.3% 증가로 신장된 반면, 베트남, 태국은 전년을 밀돌았다. 필레프(볶음밥) 등 쌀을 포함한 것은 19.3% 감소한 162톤이었다. 평균 단가는 3.2% 하락한 1,070 엔이었다. 1~8월 누계는 냉동 새우가 8만 9,663톤(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금액은 949억 7,795만 엔(8.5% 감소)이었다. 가공품은 3만 8,542톤(6.4% 감소), 424억 8,247만 엔(8.3% 감소)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9일자



일본, 어획 증명 법제화

필요한 정보 전달·기록, 불법 근절 법안 마련

올 가을 일본 임시 국회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방지하는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의 취급자에 대해 생산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정보 전달·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10월 14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자민당 수산 부회·수산 종합연구회 합동 이사회에서 일본 수산청이 이를 설명하고 관계 의원이나 단체들이 대체로 수용했다.

제도안의 원형은 수산청 산하의 지식인 검토회가 지난 6월에 정리한 내용이다. 국산품, 수입품 각각에 대해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정부가 지정하고 불법 제품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는 상품의 유통을 방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산품]

일본 국내에서 불법 및 과잉 어획될 우려가 큰 어종을 국가가 지정한다. 해당 어종을 잡는 어업자와 어협 등은 농수성과 도,도,부,현 행정 당국에 신고해 스스로의 조업이 어업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행정 당국은 합법적인 어업자나 어협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 번호를 통지한다.

지정 어종을 판매하는 업체는 ① 어종 ② 중량 또는 수량 ③ 거래 및 폐기, 분실을 한 년 월 일 ④ 매매 상대방의 성명 ⑤ 어획 번호(신고 번호와 배송 날짜를 조합한 번호) 등을 기록해야 한다.

지정 어종을 수출하는 업체는 별도로 적법하게 어획·유통해 온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정부에 신청

하여 받은 뒤 세관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의 업체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산품 대상 어종으로는 전복과 해삼이 유력시 되고 있다.

[수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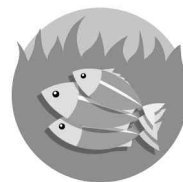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 우려가 강한 어종을 농수성이 지정한다. 해당 어종 라운드와 그 어종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세관의 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수입 시 인증 내용은 ① 어선 명·등록 번호 ② 어획 수역 ③ 어종 ④ 중량 ⑤ 어획 날짜를 표시할 것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선 기국 정부 등에서 발행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

증명 첨부 없는 대상 어종의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기타 허위 신고 등도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경과 조치를 취한다. 시행일은 법률 공포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9일자





북대서양 회유성 어종 TAC, ICES 조언에 따라 설정 2021년 TAC 청대구 929,292톤, 대서양 대구 651,033톤

북대서양 연안국들은 과학적 조언에 따라 대서양 청어(Atlanto-Scandian herring), 청대구(blue whiting)에 대한 총 허용어획량(TAC)을 설정했다. 2021년 고등어 관리 조치와 회유성 어종(pelagic) 감시·통제·감독(MCS) 조치에 대한 1차 협의도 진행되었다.

유럽 연합, 페로 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러시아, 영국 대표단은 지난 2주 동안의 화상 회의를 통해 TAC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2021년 북동대서양 청대구와 대서양 청어 관리 조치에 동의했다.

2021년 청대구 TAC는 당사국인 유럽 연합, 페로 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협의하여 92만 9,292톤으로 설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TAC는 올해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로 장기 관리 전략(LTMS)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에서 권고한 양과 동일하다.

2021년 대서양 대구 TAC는 노르웨이,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러시아, 영국, 유럽 연합이 65만 1,033톤으로 합의했다. 이번 대서양 대구 TAC도 장기 관리 전략 접근 방식에 따라 ICES가 권고한 양과 동일하며 올해에 비해 6% 증가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영국 유럽 연합이 1차 회의에서 ICES가 제시한 TAC 관련 과학적 권고와 어획 통제 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대표단은 ICES에서 최대지속생산량(MSY) 접근 방식에 따라 제시한 과학적 권고가 2021년 TAC를 설정하는데 좋은 기반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2021년 어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다음 회의는 늦어도 올해 11월 25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참석한 국가들은 어업 통제 규칙에 대한 ICES의 권고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2021년 초까지 고등어에 대한 새로운 장기 관리 계획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1년 회유성 어종 통제 조치 관련 1차 협의에서는 유럽 연합, 노르웨이, 페로 제도가 동의한 주요 통제 수단 패키지를 어떤 연안국이 지지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11월 6일자



중국 원양 어선의 관리 체제 강화 지속성 심포지엄에서 소개, 새로운 개선점도 지적

11월 5일 온라인에서 개최 중인 ‘도쿄 지속 가능한 시푸드 심포지엄 2020’ 2일째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원양 어업 관리 체제 강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진입 기준의 엄격화, 위치 정보 보고 빈도의 증가, 공해에서의 해상 전제 활동 보고 의무화, 공해 오징어 조업 휴어 기간 설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방 웡진 숲·해양 문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국의 원양어업(중국 이외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에서 이루어지는)의 관리 강화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4월 1일부터 IUU 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보조금 중단이나 IUU 어선장 자격 박탈, 악질 어업 직원 블랙리스트화를 시작했다. 원양어업의 진입 기준을 경영진이 지난 3년 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하며 자원·어획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을 정했다.

1월 1일부터 원양어선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에 의한 위치보고 빈도를 1시간에 1 회 이상(기존 4시간마다)으로 늘렸다. 또한 올해 4월 또는 내년 1월부터 공해에서의 해상 전제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제 전후의 선박 활동 보고와 전제 시 감시원 입회를 의무화했다.

올해부터 공해 오징어 어선에 대한 휴어기도 설정했다. 남서 대서양은 7~9월 동부 태평양은 9~11월에 조업을 중단한다. 이외에 향후 남서 대서양에서 트롤 어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편 방 매니저는 『중국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칙이 생겼지만 더 감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연단에 오른 청도 마린 컨서베이션 소사이어티 손린 원 이사장은 『IUU 근절은 비정부기구(NGO), 어업 커뮤니티 및 공급망 전체에서 사업과 연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9일자

노르웨이, 러시아 대서양 대구 쿼터 증가 합의 대구 20%, 해덕대구 8.2% 증가

노르웨이와 러시아 정부 담당자들은 지난 10월 16일에 북동대서양 공유 수역의 어업 쿼터 배분에 합의했다. 대구 쿼터는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21년 북동대서양 대구 쿼터를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권고량과 동

일한 88만 5,600톤으로 합의했다.

해덕대구 쿼터 또한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권고량과 동일하게 설정해 8.2% 증가한 23만 2,537톤으로 결정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0월 16일자



아르헨티나 깔깔새우 3개월 어기 종료 선동선 반입 지연으로 국내 판매 가격 상승 900엔

일본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 깔깔새우(윙털빨강새우)를 잡는 정부 관할 해역에서의 선동선 조업이 16일 종료되었다.

예년보다 2개월 정도 늦게 조업을 시작했었지만 종료 시기는 다소 빨랐다. 약 3개월의 어기인데다 태풍으로 조업할 수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어획량이 매우 적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는 10만톤 정도의 어획이 있었지만 조업 기간이 짧아서 추측하건데 5만톤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업 종료로 대부분의 어선이 귀향한 반면 일부는 북부 어장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획 구성은 L1(kg 당 10/20마리)이 30%, L2(20/30마리)가 50%, L3(30/40마리)가 10% 정도다.

현지 시세는 『신물 첫 가격을 최저가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상사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이나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은 8월 현재 국내 재고가 거의 없어지고, 신물 반입 대기 상태였다고 한다. 대폭적인 감산과 반입 지연으로 각국 모두 국내 가격은 상승했다. 일본 국내 판매 가격(상사 출시가, L2 사이즈)은 『최저가가 kg당 650 엔에서 900 엔까지 올랐다』고 한다. 신물 반입은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상사 관계자는 『반입이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껍박감은 없어지고 시세 상승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년보다 적은 반입량은 변수다. 곧 1000 엔을 초과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4일자

노르웨이 양식 연어 2021년 최대 139만톤 예상 분석 기관 전망, 증산 거듭 반세기만에 136만톤으로 증가

노르웨이 양식 대서양 연어의 증산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양식업 분석 기관, KONTALI가 발표한 노르웨이 연어의 2020년 생산 전망은 135만 5,000톤이다. 202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39만 톤이 될 전망이다』고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대규모 외해 양식을 하는 등 세계로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노르웨이 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연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35만 7,300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만에 130만톤 대로 올랐다.

올해는 노르웨이가 연어 양식에 성공한지 50년째 되는 해에 해당한다. 노르웨이에서는 1960년경에 양식 연구를 시작, 1971년에 노르웨이 중서부의 히트라 섬에서 수확에 성공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양식 생산량은 1976년에 1톤을 돌

파했다. 80년대에는 생산량 증가로 인해 어병 발생이 문제시 되고 물고기 복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다. 정부 주도에 의한 양식 대규모화와 항생제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9년은 99%가 항생제 미사용>

NSC에 따르면 연어 양식 항생제 사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사용 비율은 사상 최저였다.

양식업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 정리한 연례 보고서는 같은 해에 생산된 연어 중 99%가 항생제 없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NSC의 레나테 라센 CEO는 『물고기의 복지와 식품 안전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밝히고 『식품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노르웨이 양식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7일자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 법 국회 통과 외국인 투자 용이하게, 국제 선박 입어와도 연관

인도네시아 소규모 채낀기, 손낀시 어업은 새로운 법의 통과로 인해 대형 선박에게 보조금을 빼앗길 수 있다. 법안이 승인된 후 환경 운동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폐지를 요구해왔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국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5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법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창출 법은 소규모 어업을 포함해 70개 이상의 노동 관련 법률과 세금의 변경을 목표로 한다. 구법에 소규모 어업자는 총톤수 10톤 이하의 선박을 보유한 어업자로 공식 정의되어 있었다. Mongabay News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어업자는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고 국가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무료 등록, 어업 장비 사용, 연료 보조금과 같은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는 동 정의가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번 삭제로 소규모 어업자들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을 더 큰 상업적 어업인들에게 뺏길 수 있다. 이 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국제 투자에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어업에서 국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제 선박이 인도네시아 바다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이다.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는 외국적 선박들의 불법 어업 관행이 자국의 어류 자원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거의 고갈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적 선박을 EEZ에서 퇴출시켰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어획량 삭감 보다 자원 회복에 더 효율적이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15일자

양식 새우 2018년 생산, 양식물이 전 세계 60% 600만톤 새우 생산 현황

스시와 튀김, 생선회, 볶음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새우. 현재의 생산량은 천연 제품보다 양식물이 많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8년 새우류 생산량은 946만톤이다. 이 가운데 양식물이 600만톤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양식물 성장을 이끄는 것이 바나메이(흰다리새우)이다. 세계 양식 바나메이 생산량은 2000년의 15만톤에서 2018년에는 497만 톤으로 33배, 블랙 타이거(BT)보다 대량 생산하기 쉬운 것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양식 BT의 생산량은 한계점에 다다른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천연물은 일본이 수입하는 새우에 한정하면, 아르헨티나(AR) 깔깔새우(용털 빨강새우)가 주력이다. 최대 어획국인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25만톤을 어획, 2008년 5만톤의 5배가 되었다.

일본에서 새우는 주로 상사를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2019년도 일본 국내 새우 판매고는 마루하니 치로가 최고였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는 새우의 약 90%가 수입품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7일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서양 대구 시장에 그림자 드리워 2021년 공급 11% 증가 및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예상

대구 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렌츠해 대구 쿼터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21년에 대서양 대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저서어류 공급량은 700만톤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 중 대서양 대구는 16% 정도를 차지했다. 대서양 대구 가격은 2013년 이후 긍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였다. 2021년 대서양 대구 공급량은 바렌츠해 쿼터 증가로 총 11% 증가해 127만 1,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아이슬란드 쿼터는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ordea Markets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Finn Arne Egeness는 Sea Data Center와 Maritech가 개최한 인터넷 세미나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다가올 확대에 의해 대구 가격이 2021년 내내 하락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흰살생선 분야의 대기업인 Norebo는 2021년에 모든 제품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현재 수준의 복귀를 예상했다. Norebo 판매 부사장인 Kristjan Hjaltason은 중국의 냉동 대구 H&G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실제 성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상 냉동 및 육상 냉동 필렛 시장은 2021년에 강세를 보이고 유럽에서 90%가 판매될 것이며 해동 제품 판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구는 중국으로 수입된 후 필렛 제품으로 가공되어 미국 또는 유럽으로 수출 된다. 하지만 Hjaltason 부사장에 따르면 『올해는 유럽에서 가공을 위한 원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0월 22일자

러시아 2020년 수산 생산 500만톤 전망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산청장이 보고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 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일리아 세스타코후 농업 차관(수산청 장관)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올해 자국 어업 생산이 500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는 것 등을 사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산업 상황을 높게 평가했다. 세스타코후 차관은 올해 캄차카 지방에 태평양 연어·송어 내유가 약화되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명태와 정어리, 고등어 어업이 건조

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산 양식법 채택 이후 양식업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7척에 달하는 어선 건조 프로젝트가 있고, 이 중 투자 쿼터 기준으로 56척, 계약 할당 경매에서 35척의 갱신이 산업 통상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25개의 육상 수산 가공 공장이 건설될 계획인 것 등을 보고했다.

이밖에 과학 조사선 갱신,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부족 실정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수당(예산) 등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수락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2일자



겨울바다

황 동 규

薄明의 구름장들이 빙빙 돌아간다
 고통처럼 단순한 몇 포기 섬들이
 갯벌에는 여인 서넛이
 소주처럼 쓴 물결을 휘젓는 바람소리가
 아 바람이, 하늘에선 박명의 구름장들이 빙빙 돌아간다.
 웅크리고 박혀 있는 몇 포기 섬들
 갯벌에는 여인 서넛이
 허리 구부릴 때 그네들에게 잡혀주는 몇 마리 게새끼가
 매어 달리는 이 풍경.
 아 바람이
 짧은 해안선을 미친 듯이 달리는
 두 손바닥의 땀방울이.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곳, 총 148억원 투자 받는다

2020 해양수산 중소기업 컨퍼런스 개최, 10개 기업 선정, 총 148억 원 투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을 개최했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 총 373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 체결과 500건 이상의 투자상담을 성사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기회 유치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 분야 산업계,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 등 일부 프로그램만 현장에서 진행하고, 이외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

었다. 개막식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나 기관을 포상하는 ‘제6회 해양수산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대상 수상자로는 고부가가치 황금넙치 종자를 개발하여 6개국에서 124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영어조합법인 해연’이 선정되었다. 이어,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곳과 총 14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 기술개발(R&D) 성과물 4건에 대한 기술이전 체결식도 열렸다.

체결식 이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을 주제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공공부문 운영원 대표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으며,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신산업 창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해수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지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에 참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남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개선 사업’ 등 총 23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 관련 분야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하게 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으로 3년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30% 감면

10~12월분 보험료 감면, 어업인 41억원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 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해수부, ‘2020 K-SEAFOOD Global Weeks’ 개최

세계 11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물(K-SEAFOOD) 판촉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산물 수출 시장의 판로 확보를 위해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에서 ‘2020 K-SEAFOOD Global Weeks’(이하 ‘2020 KGW’)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은 ‘2020 KGW’ 행사에는 11개 주요 수출국가의 온·오프라인 매장 463개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행사 기간 동안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와 연계하여 우리 수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할인, 시식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김스낵, 어육소세지 등 간식류와 조미김, 어묵, 전복 등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수산식품을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현지에서 유명한 중국의 타오바오·핀둬둬,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일본 라쿠텐, 태국 라자다?쇼피 등에서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미국의 H마트, 베트남 Big C, 중국 CGV 등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중어업협상 타결

내년 우리수역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50척 감축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부터 6일(목)까지 4일간 제 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 회담을 개최하고 2021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장시엔리양(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 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해 '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양의 73%를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커서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그리고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했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했다.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후 귀향하는 중국어선 정보를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협업해 중국 측에 제공하여 중국이 현장 단속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증강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측 수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금년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순시를 실시하고, 2016년 전면 중단되었던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되 2021년 하반기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의 긴급한 사정으로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이 곤란해 오늘은 양국 국장급 준비회담 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향후 본회담 수석대표가 정식서명을 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록을 교환하기로 했다.



2020년 3분기까지 전 세계 해적사고 11% 증가 해수부, '2020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3분기까지(1~9월)의 전 세계 해적사고 동향을 발표하고, 해적에 의한 선원 납치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싱가포르 해협 등 해적출몰해역 항해 시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 3분기까지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119건) 대비 약 11% 증가한 132건이며, 85명(전년 동기 70명)의 선원이 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44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며 전년 동기(50건)보다 12% 감소하긴 했으나, 전 세계 선원 납치 사건의 약 94%(80명)가 이 해역에서 발생했고, 선박 피랍 사건(2건)도 모두 같은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여전히 이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 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이 연이어(3건, 8명) 발생한 바 있어, 이 해역에서 조업·통항하는 선박들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해적피해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와 UN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적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말리아 남쪽 모잠비크 인근 해역에서 묘박중인 선박이 해상강도에 의해 공격받는 사례가 발생(3건)한 바 있으므로, 가능한 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하고 피해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 증가(1→15건)와 생계형 해상강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전년 동기(43건) 대비 44.2% 급증한 6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했고, 5명의 선원납치 피해(말레이시아)도 발생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비해 납치피해 발생건수는 적지만,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 해역을 항해할 선박은 항해당직 선원 외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 발간 해적 위험 해역 지나기 전에는 예방지침서 꼭 보세요!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 해적위험해역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28일(수)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국제 규정 등을 반

영한 최신 지침서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선원,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외교부(현지공관), 선원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명란은 무조건 냉장보관? 보관 쉬운 통조림 명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수산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가정간편식(HMR) 수산가공식품 개발 기술 14건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29일(목)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는다.

가정간편식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격히 성장해 왔다. 특히, 수산식품의 경우도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가 외식보다 가정 내 식사를 선호하고, 온라인 식품 구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손질이 필요 없고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기술력을 갖춘 대학 등 연구기관 및 식품개발을 원하는 중소 수산물 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수산가공식품을 고부가가치의 간편식 수산가공식품 및 수출상품으로 대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이 사업을 통해 총 2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전된 기술이 모두 제품화되어 2020년 상반기까지 국내 매출액 약 90억 원, 수출액 약 33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

를 이룬 바 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명란 통조림 제조, △굴 그라탕 제조, △가리비 조미가공품 제조, △키조개 패육 해산물 볶음 제조 등 총 14건으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명란 통조림 제조 기술’은 전통발효식품인 명란을 통조림 형태로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그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명란 보관의 편의성을 높여 명란파스타, 명란계란말이 등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굴 그라탕 제조기술’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크림소스와 로제소스를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굴 손질과 그라탕 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맛과 영양을 갖춘 간편식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면서도 간편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협의회 개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수산정책!

해양수산부는 주요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기 위해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촉식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해양쓰레기 관리 등의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민간 해양환경단체들이 정부측에 소통채널 구축과 정례적인 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실무협의(2월) 및 분과위원회(5~9월)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민간단

체측 위원장(최중기 황해섬네트워크 이사·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이 공동으로 반기별 1회 회의를 주재한다. 산하에는 해양환경, 국제어업관리, 수산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첫 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간 협의해 온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강화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어업 방지 ▲해양포유류 보호 강화 ▲불법·비규제·비보고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분야 민·관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어선원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술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차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총괄
		소기동 차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진호정 차장	선망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연수·오징어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북양, 콩치
부산지부	-	최동환 주임	기타트물
		이형균 부장(겸직)	
	공인계량소	김현애 과장	확인업무(수출, 반입 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총괄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해외 수산 협력 센터 (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중국 업무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이지현 전문관	044-868-7832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김지은 전문관	044-868-7363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e.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j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7호

발행 : 2020년 1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